금주일언
백만인을 적으로 삼아 한 사나이가 이길지라도 자신을 이겨 싸움 중의 상등이 되는 것만 못하다
〈법구경·술천품 283절〉

東大新聞

발행인 민병천
편집인 겸 주간 심익섭
부주간 이만성
편집국장 이석종

펴낸 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60-34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57)

제 1160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11월 2일 (수요일) 1

총학선거 1차유세 치뤄

이영재·이상환조-안진우·곽유찬조 등록

총여, 김나영·이윤수조 단독 입후보

◇제27대 총학생회 선거 1차유세로 본격적인 선거분위기가 일고 있다.

제27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로 이영재(정외 4)·이상환(인철 3)조와 안진우(국교 4)·곽유찬(야간영문 3)조 2팀이 등록했다.

지난달 31일 후보자 공보로 시작된 총학선거는 어제(1일) 1차유세로 본격적인 선거분위기를 찾아가고 있다.

이·이조는 '새로이 쓰여지는 제3세대 동악의 역사! 21세기 진보와 통일의 시대! 참여와 창조의 우리 세대가 달려갑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공약으로 △양심의 1세대와 이념의 2세대를 넘어 사회와 새로운 대화를 하는 합리적 학생운동의 제3세대 만들기 △민족회의와 함께 통일시대맞이 운동 전개 △생활진보에 기반한 네트워크 학생회 건설 △우리세대의 가치와 문화로 제3세대 문화창조 △학문권, 대학권에 기초한 동악 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총장 선출등을 내걸었다.

안·곽조는 '시대개척! 도전하는 1만 청춘이여! 통일로 가는 애국공동체로 거듭나니, 민족지성! 그 자부심으로 새동국 건설을 다짐하자!'라는 구호와 함께 △창조적 새동악 건설로부터 민족지성회복 한총련 개혁 △애국심으로 당당한 학생회 건설 △화합과 건설의 새로운 학자루, 범동국 구교운동 △1만이 참여하는 대동제 실현 △자주적 총장선출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28일 중선위실에서 양쪽 후보 사무장들이 가졌던 룰미팅에서는 선전물 부착과 선거자금예치등을 주로 논의했다.

이번 선거에서 쓰일 선전물은 리플렛, 정책자료집, 신문 3가지로 결정했고 포스터와 현수막은 중선위측에서 제작해주기로 하였다.

또 정책자료집은 20쪽 분량 3천부이하, 포스터는 1백부, 현수막은 양후보당 2개씩으로 결정됐다.

선거자금은 상한선을 5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선거공영제에 따라 기본 예치금 1백30만원을 중선위에 예치한 뒤 관리도 중선위에서 맡기로 했다.

포스터등의 선전물은 양쪽 후보의 기호를 정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단대순서가 앞서는 이·이조를 왼쪽에 안·곽조를 오른쪽에 부착한다.

한편 제10대 총여학생회 선거 후보자는 김나영(교육 3)·이윤수(법 2)조가 단독출마했다.

김·이조는 '여성임을 자각하는 것은 저항이며 변혁이다. 동악의 여학우여, 이제 진정한 인간해방의 첫발을 내딛자. 총여학생회 그 당당한 모습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추진 △정체된 동국발전 2천여 여학우와 다시 일구는 자치대학 건설 △동악의 여학우 소식지, '자리찾기'로 올바른 성문화 개척 △여성학회, 소모임 지원 △여성용품 자판기 확보, 여학생 휴게실 개선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1차유세는 어제(1일) 오후1시 도서관앞에서 학생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고 2차유세는 내일(3일) 진행되며 7일 공청회, 8일 3차유세, 9·10일 투표의 일정으로 선거가 치뤄진다.

교수폭행사건 관련 학생 제적

부총장·교무위원 사퇴의사 밝혀

성명서 채택·참회법회 가져

학교당국은 오늘(2일) 임시 교무위원회를 열고 교수폭행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양승일(국문 3)군과 장선규(국문 3)군등 2명의 학생에 대해 제적을 확정했다.

또한 양군등 2명이외에도 김천직, 조민호, 변윤수, 신훈승, 이정룡(이상 국문2)군등 5명에 대해서도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31일 양군등 국문과 학생 7명이 과학관 뒤편 남산에서 술을 마신후 하교하던 도중 양군이 본관앞 불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되근하던 최창술(선학)교수가 발견하고 꾸짖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최교수는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늘(2일) 부총장등 전체교무위원은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국문과 교수들은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국문과 학생들 역시 '스님과 교수님, 교직원 그리고 전동국인, 전 동문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죄의 뜻을 표하고 참회법회를 불상앞에서 가졌다.

또한 이사건과 관련해 오늘(2일) 오후4시30분 동국관(L301)에서 긴급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거울삼아 격동의 시대에 진정한 교육의 길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모색하며 교육의 본질인 사랑과 질책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교수일동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문화예술대학원 신설

문예창작·연영·불교예술문학과 등

본교 '95학년도 전문대학원에 문화예술대학원이 신설된다.

문화예술대학원 신설은 지난 10월21일 교육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문예창작학과, 연극영화학과, 불교예술문화학과 등 3학과에 70명의 학원생을 모집하게 된다.

"국문학뿐 아니라 최근 들어 연극영화학과가 본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한 관계자는 전문대학원에 문화예술대학원을 신설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다고 밝힌다.

이번 '95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석사과정에 20명이 증원됐고 교육대학원에 중국어교육학과가 행정대학원에 북한학과와 지방자치학과가 정보산업대학원에 광고홍보학과가 지역개발대학원에 지역경제학과가 각각 신설됐다.

또한 불교대학원의 불교사회학과가 불교사회복지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정보산업대학원의 정보전산학과가 정보관리학과와 전자계산학과로 분리됐다.

한편 정보산업대학원의 산업개발학과와 행정대학원의 안전관리학과와 노무행정학과는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일본동양대학과 교류협정

공과대 교류 기대돼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는 지난 10월17일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황창규·경영학) 임시회의를 통해 일본 동경 동양대학과의 교류를 잠정확정했다.

올해 초부터 거론돼 왔던 이 교류협정은 지난 9월 동양대학측이 교류협정제안서를 본교에 보냈고 이에 국제교류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합의를 봄으로써 잠정적으로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비롯 위원9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 교류협정은 내년 여름까지는 완료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제부의 한 관계자는 "동양대는 1백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으로 공대가 아주 잘 발달돼 본교 공대와의 교류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14일 수강신청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학)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9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받는다.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내년학기부터 1학년교양과목 60명정원제로 인해 강의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각 과 교수들에게 0교시와 9교시 강의시간 편성을 허용했다."고 밝혔으나 지금과 강의시간 편성이 거의 달라지진 않을거라고 말했다.

한편 강의계획서는 오는 10일과 11일에 각 단과대 교학과로 배포될 예정이다.

세계정치…심포지엄

세계정치경제연구소(소장=김진철·정치외교학)가 주최하는 제2회 세계정치경제연구소 심포지엄이 오는 9일 동국관(L306)에서 열린다.

세계화추세에서의 주요쟁점및 규정과 세계 이데올로기의 유포등에 대해 토론하는 심포지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세계구성체로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제2주제=마르크스주의의 계급성과 오늘날의 민족문제 △제3주제=세계화, 지역화와 국민국가의 장래.

교수동정

▲김한(영어영문학)=한국 세익스피어학회 주체로, 지난 29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세익스피어학회 가을 정기 학술 발표회에서 "Macbeth as everyman"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송석구(철학)=한·중·일 국제학술대회-유교공동체문화와 각국의 윤리교육 비교에 참석 기조발제.

▲정용길(정치외교학)=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선진한국의 정책과제와' 방향'세미나에서 주제발표.

▲한봉희(법학)=오는 5일 열리는 '한일가족법학회 학술회의'에 참석 '한국의 성년양자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 또한 8일에는 일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한국이혼법'에 대해 특강.

▲오정수(산림자원학)=오는 11월3일 한국종합전시장(KOEX) 4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한솔환경세미나 "그린라운드와 임업의 역할"에 대해 "목재 폐기를 재활용"을 주제로 발표.

◇95년 1학기 연구년 교수

▲이형기(국어국문학)='현대시론'에 대해 연구.

▲김홍철(농업경제학)='농업경영과 농업노동력'에 관한 연구.

▲김길원(한의학)='경락의 기화생리에 따른 생명현상'에 대해 연구.

◇95학년도 제2학기 특별기금 교원해외연수(95.9.1~96.2.28)

▲이지수(인도철학)=인도 뿌나대학교에서 세치뇌 유식삼식송연구-안혜의 석론을 중심으로.

▲정용근(회계학)=미국 콜로라도대학에서 우리나라 회계 공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박춘엽(산업공학)=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기술 창업에 대해 연구.

▲권은주(불교아동학)=미국 하바드대학에서 인간발달 및 교육에 대한 동·서양 비교연구.

▲임태평(기초과정)=미국 미주리대학에서 플라톤의 철학과 프래그머티즘에 대해 연구.

1면칼럼 보리수는 필자 관계상 한 주 쉽니다.

사과의 말씀

지난 10월31일에 있었던 본교 학생의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교권이 실추되고 본교의 건학이념에 누가 되었으며 전동국인의 명예를 손상한 점에 대하여 본교 교수일동은 경악과 비탄을 금치 못합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베풀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교계 및 종단, 국민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전 동문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도덕부재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교 교수일동은 이 사건을 거울로 삼아 격동의 시대에 진정한 교육의 길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모색하며 교육의 본질인 사랑과 질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교수로서의 책무를 통감하면서 심기 일전하여 올바른 학풍의 진작과 학생들의 인격함양은 물론 본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동국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하며 거듭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1994. 11. 2

동국대학교 교수일동

오늘을 사는 동국인 – 최은혁 동문

'한글배너방'제작한 예비 석사

"컴퓨터요? 83년도니까 중학교때 처음 만났어요"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최은혁(컴공93졸·대학원 석사3학기)동문,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한글배너 프로그램'을 91년도부터 개발하여 올해 9월에 '한글배너방'이란 명칭으로 현대전자에서 시판하고 있다.

"원래 글씨를 못써서 한글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어요"라고 제작동기를 밝히지만 실은 남들이 손대지않은 분야를 개척해보고자 하는 이른바 개척정신이 동기가 됐다며 상업적이 아닌 단지 자기만족을 위한 연구일 뿐이라고.

'한글배너방'은 기존 배너프로그램이 하나의 문자만을 지원하는것에 비해 한글, 영문, 한자, 일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해 시중에서 좋은 반응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밤에 프로그래밍 작업을 많이 하니까 잠도 부족하고 학교생활과 병존이 잘 안되요"라고 어려움을 밝히는 그의 선한 그리고 날카로운 얼굴에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였다.

그는 PC가 많이 보급된 요즘에도 컴퓨터를 다룰줄 모르는 학생이 많다며 두려워하지말고 일단 키보드를 두드려보라는 자상한 조언까지 잊지 않았다.

"꿈요? 내 꿈이라면 외국기종이 판치는 지금, 그것들에 대항가능한 우리 기술의 발달에, 그것도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본기술의 발달부분에 힘써 95년 통신개방의 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해요"라고 말하는 최은혁동문.

그는 요즘 하이텔 동국대학교 동호회(가칭)개설준비로 정신이 없다.

저변이 확대된 PC통신을 이용해 과단위의 친목을 넘어 통신인사이의 친목도모와 동문이 학교를 접하는 계기및 서울과 경주캠퍼스의 지역차를 극복하기위해 동호회를 준비해 내년 1월쯤 개설할것이라고 말하는 최은혁동문에게서 연구자만이 아닌 청년 동악인으로서의 의지를 느꼈다. 〈勳〉

열린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 2603491, press11)

불법주차 스티커, 홍수

외부인에게 불쾌감 줄수도

이 맑고 향기로운 가을날에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다.

언제부터인지 신기록아닌 신기록(?) 달성에 우리들의 화제가 옮겨졌다.

"야, 저기보니까 3개가 붙었더라." "뭘, 3개 가지고 그러냐 조금전에 Pride보니까 8개가 붙었던데." "8개! 8개면 말도 않는다. 내가 본 차에는 앞·옆·뒤 유리창 심지어 지붕 위에까지 13개나 붙여놨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불법주차 자동차에 부착된 스티커를 본 사람은 알것이다.

물론 나는 자가용이 없다. 투철한 지하철 애용가니까!

그러나 자가용 가진 분들이 얄미워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불법주차한 사람에게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자비와 이해심의 상징인 우리 동국대학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이다.

이런 따끔한 맛을 본 분이 다행히도 우리학교 학생·관계자라면 밖에 나가서 우리학교 욕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에하나 외부손님이었다면 어떨까? 그것도 차에 온통 스티커로 도배를 한후 서울시내 한복판을 누비고 다닐것을 상상해보라? 어디에가서 동국대학이라는 말만 나오면 침이 닳도록 학교흉을 볼것이고 또 그 스티커를 본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오늘도 스티커를 떼느라 땀아닌 땀(?)을 뻘뻘 흘리는 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과연 스티커 부착 신기록만이 최상의 주차문제 해결책일 것인가?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주차문제로 우리학교에서만이라도 산뜻한 주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주차,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주차로 주차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

지 준 호
〈사회대 행정학과〉

'정부추진개혁'국민 기대

성수대교와 함께 무너져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면 국민 모두는 국가의 정책에 노력하고 따라야 한다"는 국민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필자가 굳이 이글에 옮겨 싣는 까닭은 다름아닌 작금에 일어난 참혹한 사고, 사건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지금의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에 다소 많은 변화를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대가 너무 쉽게 무너짐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크나큰 실망을 가졌다. 무릇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하지 않았던가.

잦은 지하철 고장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구포 열차사고 등 차마 떠올리기 조차 끔직한 사고들이 국민생활을 옭죄이고, 공포감을 더해준 것을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변화의 시대에 '개혁(?)'을 유독 강조하는 현 정권에 국민들은 다시금 기대를 걸고 저마다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청천벽력같은 사고는 민심을 무너뜨리고 만 것이다. 지옥과도 같은 입시전쟁 속에서도 환한 웃음을 띄며 등교한 학생이, 출근길의 시민들이, 잘려나간 성수대교에서 참변을 당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사고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담화문이 발표되기 서너시간전 충주호 유람선 전소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모든 민심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장경질, 담화문 발표, 뒤늦은 안전진단 외에 어떠한 조치도 없이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들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바 국민은 무엇을, 어디에 기대를 두고 합심하겠는가? 정부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무너진 민심, 불타버린 민심은 임기응변식인 어떠한 정부정책에 대해 따르지 않을 뿐아니라 기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 낙 형
〈상경대 관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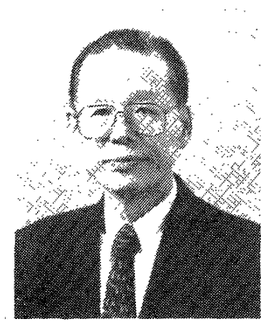
◇투고 시

밤의 이야기

람 정
〈사범대 지교과〉

밤은 좀처럼 죽지 않았다
열두명의 어린 소녀들이 오늘도
윤무를 귀엽게 그렸다
……이 때 독가스실에서 한
어린 유태 계집이 죽어갔다는 나는
이 쪽에서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상송을 송두리채
간직하며 모든 가을을 쓰다듬었다……
붉고 붉은 아스타 꽃잎이 스산하게
나를 마구 울렸다. 나를 바로 나를
흔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눈망울에 눈빛 속으로
마구 들어가고 싶었다 마구
춤추고 싶었다 그래도
밤은 좀처럼 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푸른 회랑의 불빛을 밟는
개를 데리고 걷고 싶었다
오늘도 열두명의 어린 소녀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다 싶었다 싶었다싶었다싶었다
바로 그렇게 파열하는 물속으로 나는 무지개가 되어 걸어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무지개가 될 수 있을까 있을까 슬프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그 소녀를 나는
사랑할 수 있을·것인가 나는 안아 줄 수 있을
것인가

동/문/칼/럼



박 은 희
〈성균관대 교수·영문61졸〉

정의·자비·지도자 부족의 해결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근간(94.10.1)에 25년후의 세계경제(Global Economy)를 예측한 특집이 실려있다.

요지는 이러하다. 지난 1세기는 선진공업국이 세계를 주도했고, 90년 현재 세계경제의 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앞으로 25년동안 세계는 과거의 1세기보다도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97년경에 50%가 되고, 25년후인 2020년에는 62%로 늘어나 지금의 선진공업국의 비중은 38%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때의 G7에서는 프랑스·이탈리아·영국·캐나다가 빠지게 될것이고, 개발도상국중에서 중국·인도·인도네시아·한국이 부상한다는 것이다.

구매력기준의 GDP(국내총생산) 순위는 ①중국 ②미국 ③일본 ④인도 ⑤인도네시아 ⑥독일 ⑦한국이 되리라고 예측했다.

대한민국은 92년현재 세계 15위에서 2020년에는 7위가 된다는 것이다. 좀 과장된 느낌이 들지만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고 지성적인 잡지로 알려진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이니 우리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7위가 될 수 있을까? 조선(造船)·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공업등에서는 이미 7위권내에 들어있다. 또 그때까지는 통일이 될것이니까 인구로 보아도 8500만(UN예측)이면 18위쯤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25년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7위는 몰라도 10위권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꿈을 가져도 과욕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살기좋은 나라가 되느냐일 것이다.

나는 세가지의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정의, 둘째는 자비, 셋째는 지도자의 빈곤이다.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도 나물을 먹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더 행복하다고 했다.

경제적인 부(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존중하는 동국인이 많이 나타나 이 나라를 「문화적인 선진국」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처럼 항상 정진(精進)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학생회 선거기사 제목

서울·경주캠 상황 설명 미흡

지난호 동대신문(1159호)의 7면 학내보도면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우선 "총학선거 본격돌입– 단대선거 마무리"라는 제목은 서울캠퍼스의 입장만을 나타낸 처사이다. 기사는 크게 서울의 상황과 경주의 상황을 나누어 적었는데 서울은 제목 그대로 단대의 선거가 마무리 되었지만 경주는 이제 단대선거가 시작될려고 한다.

즉 서울캠퍼스의 상황만을 제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개교 1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집호의 경우에는 경주캠퍼스의 목소리를 많이 실어 학우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호의 경우에는 경주보도면이 빠져있어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것 같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편집에 관한 것이다. 얼핏 보기에 7면은 학술면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학내 보도면은 읽기에 편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한 느낌이다.

많은 학우가 지켜보는 신문으로써 좀더 신중 해주었으면 한다.

김 성 원
〈불문대 불교학과·본사모니터〉

동/악/광/장

목멱골

◇축하합니다

■한신이형, 생일축하드려요.
– 2천년을 기약하는?

■마구만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 사회학과 일동

■5일은 도연이의 생일이래요. 축하해주세요.
– 농학과 이쁜이들

■은영아! 생일 정말정말 축하해!
– 영천 청년 대표

■11월4일 정은이언니의 생일을 축하하며 만수무강(?)하길.
– E·F·T 아무개

■상효선배님! 유찬선배님! 생일 축하합니다.
– 매

■황인구·김준철선배의 제11대 야·총 당선을 축하합니다. and 열심히 하세요.
– 비서로부터

■충현아! 생일축하해 그리고 머리 때린거 미안하다(다향관에서 어떻게 안될까) 나두!
– 영석이가

■영문과 박현정, 최현규 두 선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영문과 일동

■사학과 제5회 동사춘추의 성공적인 폐막을 축하합니다.
– 93 준

■11월2일 사범대의 달. 문정언니 생일을 축하해요.
– 미운후배가

■종원이형 생일(11월6일)축하해요.
– 통·조 94 후배들

■학생연대회의 3차신문 발간을 축하해요.
– 맑스 철학 연구회

■극예술 연구회 93학번 이은석의 군입대를 축하드려요.
– 오정규, 조진용

■성조야 생일 미리 축하해. 그리고 야유회가서 잘 놀아보자.
– E&M

■제17대 공과대 학생회장 선거 당선을 축하합니다.
– 김성현·박창민선거운동본부

■성윤형, 기온형, 연희누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말루 많이
– 우2

■11月18日 서춘식(90), 김태운(93), 김보경(94)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통계조사연구회

■형준이의 입대를 축하하며…
– 동국대 전체여학우 일동

■사우회 94 법정 무사히 마친것 정말 축하해요.
– 94 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리교육과 93 오빠들 중간고사 치르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생긴것도 멋있고 공부도 잘하는 93오빠들 화이팅!
– 모女人

■민환, 석범, 윤재, 수진 및 선운본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 교육 92成

■회계학과!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1학년 후배님들…
– 이부회계 후배님들

■하나우리제 준비하느라 모두 수고했어요.
– 회계(야)학생회

■농경과 2학년 여러분 중간고사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Fighting 농경 2학년!
– S바보

■떨어진 똥 창제를 격려하며…
– 한해동안 '왕'수고혔어

◇알립니다

■11월4일 영주향후회 한대요. 많이 와주세요!
– 영주향우회 짱

■윤리과 가을소풍 다녀왔어요. 멋진 단풍으로 94학번 마음을 곱게 물들여 왔답니다.
– 케이·에스

◇열심히 합시다

■제주도 종마 좌○○, 윤리과 조○○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요. 항상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하겠습니다.
– Smurf

◇그리고…

■촬영에 협조해 주신 경찰행정학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DUBS(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지은아, 土요일날에 있었던 일 미안하게 생각한다
– 오빠

온방골

◇축하합니다

■안대수, 김용석 제12대 총대의원회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이철웅, 이승익

■바라일 14번째 'LIVE IN DONG – GUK'축하합니다.
– 태동이& 성규

■회계학과 3년 정민주 선배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 내가

■늦었지만 선희 탈수습과 병찬이 신고식 축하한다. 발전을 기대하며…
– 쩝

■모디 기타맨 상욱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주상전하

■사·복과 Lion Queen 조수희, 생일 축하한다.
– 윤경

■중길아! 생일 축하한다. 내가 유명해졌다고 그랬지? 니 덕에 또 유명해지네
– 경희

■지은이누나 생일 축하해요
– 15기

◇수고하셨습니다

■영화모임 '소낙비'입방식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제5회 정기영화굿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황성고아원장

■종진선배님, 법정대 학술제 '모의재판'하시느라 수고많으셨어요.
– 어리

■불교학과 임원단 여러분 '학술제'하시느라 수고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하며…
– '93학번일동

◇알립니다

■한의학과 순수 음악동아리 '소리모아'가 11월3일에 발표회를 엽니다. 모두모두!!
– ?

■11월5일 오후3시 소강당1에서 KVUSA 에밀레제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 KUSA인

■교지대 인상에 발맞춰 한걸음 더 나가는 교지를 만들겠습니다.
– 始林

■大 가정교육학과 학술제를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이쁜이 돌이서

■11월8일 9일 Seven Glass 18회 정기공연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Seven Glass人

■마인드 맵에 대해 알고 계신분이나 사용하고 있으면 서로 자료교환을 바랍니다.
– (0562)84–0210

◇열심히 합시다

■지난 10월29일이 창석이형 군대제대 2주년 기념일이래요. 우리는 슬픔을 감출수가 없군요. 형! 열심히 생활하세요.
– 현·연 94

■휘철, 찬두선배, 건강한 모습으로 2년 2개월후 다시봐요.
– Black 자매들

◇그리고…

■이게 웬말인가? 문무관 사용료 3만원, 3만원에 동국일만인의 권리를 팔수는 없습니다.
– 영화모임 소낙비

■매번 같은 신청곡을 들려주시는 고전음악감상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대황하 신청자

대학순위보도와 종합평가 인정제 ——— 종합평가 인정제 대비한 학교 준비 상황

대학종합평가 학교 발전 계기로 삼자

전국 157개 대학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회장:김희집 고려대 총장)는 지난 2월 지금까지 실시되어 오던 학과평가와 병행하여 1994년부터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금년에는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등을 포함하는 6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포항공대가 대학종합평가를 받는다. 본교는 서울캠퍼스의 학부와 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1995년 받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비중이다. 본교와 함께 내년에 대학종합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는 대학들은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등 거의 대부분의 사립명문들이 망라되고 있다.

평가에 대비하여 대학들 특히 몇몇 사립대학들이 벌이고 있는 경쟁의 치열함은 한국의 대학사에서는 일찍이 찾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의 치열함은 거의 매일 유명일간지의 광고면에 나타나는 각 대학의 교수초빙 공고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 초빙교수의 숫자가 100명을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고 200명을 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수십 명을 헤아리던 과거의 초빙규모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다. 광고지면의 크기 또한 보는 사람들을 압도할 정도로 초대형이다. 어떤 대학은 초빙공고에 들어갈 도안과 광고문안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고 한다. 경쟁의 영역은 교수초빙 분야만은 아니다. 대학들은 모금한 발전기금의액수, 각종의 대학개혁 프로그램(예컨대 신임교수 계약제도,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제등)도 경쟁의 품목이라 생각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대학종합 평가인정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박하게 그리고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의 실시시기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있었고,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아직도 비판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도의 실시는 지금까지 절해의 고도처럼 외부세계의 변화에 둔감했던 한국대학들에 거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명백한 사실은 어떤 대학도 이러한 거센 변화의 태풍을 비켜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본교도 마찬가지다. 태풍에 미리 잘 대비한 대학들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것이 몰고 온 오랜만의 비로 인하여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윤택해 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대학들은 태풍 후의 폐허처럼 지금까지 이루어 온 그 나마의 명성마저 잃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학 종합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대학의 질적 비약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강의와 연구의 질을 제외하고는 대학의 질을 논할 수 없다. 우리의 짧은 대학사를 되돌아 볼 때 한국의 대학들의 강의와 연구의 질적 향상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일류대학, 이류대학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대학서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대학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평가들은 엄밀하게 말하여 강의와 연구의 질을 놓고 이루어진 평가들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대학의 학생들의 대학입학 성적으로 평가되어 왔고, 그 평가의 준거는 대부분의 경우 대학입시학원들이 제공하는 대학별 커트라인과 경쟁률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학을 생산공장에 비유한다면 한국대학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원료의 수준에 따라 비교되어 왔을 뿐 생산체제나 그들이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질을 놓고 비교된 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종합 평가 인정제"는 이와 달리 대학의 교육과정,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 각종 교육제도 및 그것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의와 연구의 질적수준을 평가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평가기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대학 평가기준의 변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종래의 경영방식, 교육과정, 강의방식, 연구 및 지원체제들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성격은 '양에서 질로', '간판에서 실질로', 그리고 '생산자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들이 질보다는 양에 더 관심을 쏟아 온 것은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경우의 기업생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지원자수가 대학의 정원수를 항상 웃돌고 있었다는데도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의 부실을 우리는 대학지원자 수의 과다로 인한 안이한 대학 경영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지금까지 국·공립과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었다. 그리고 그 통제의 궁극적인 관심은 강의와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는 학생들의 데모를 보다 능률적으로 막고, 현실정치에 대한 대학의 불만과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30년 동안 대학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의와 연구는 현실정치의 전투장으로 화한 대학캠퍼스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들은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개혁과 발전보다는 답보와 정체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교육조건에서 그리고 강의와 연구의 질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 간에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올한해동안 소위 명문사립대학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학들의 신규교원 임용 숫자만 보아도 우리는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한꺼번에 100명 이상 신규교수들을 뽑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대학들은 교수충원율이 얼마나 낮았는가를 반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많은 수의 교수를 신규로 초빙하고도 학생수 대 교수의 비율에서, 그리고 전임교수 확보율의 평가문항에서 +1 (0점을 평균이라고 볼 때)점을 받기 어려운 대학도 있다고 한다. 물론 우리 본교의 사정이 이들 대학보다 더 낫다고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각 대학의 사정은 상당한 정도로 비슷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대학도 좋은 평가를 받은 수 있으며 그 평가를 발판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께 평가를 받는 다른 대학의 사정도 특정 평가항목에서는 두드러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우리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정작 문제는 평가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각오요 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대학의 구성원들 즉, 재단, 교수, 행정직원 및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합심단결하고 평가에 대비하여 본교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모든 평가가 그렇듯이 그것은 자신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이요, 철저한 자기개혁에 대한 약속이어야 한다. 외부 압력으로 마지못해 이루어진 평가가 본교의 발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내년에 실시되는 종합평가를 우리는 동국대의 개혁의지를 결집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평가에 대비함에 있어 본교 구성원 제위의 능동적이며 헌신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한다.

박 부 권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본교 자체종합평가 연구위원회〉

사설

대학내 총체적 위기 극복해야

성수대교의 붕괴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사회 전반에대한 안전을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전형적인 전근대적 사고의 되풀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국가수준을 자조하는 사람도 적지않고 우리 사회가 사상누각처럼 위태롭게 느껴진다는 소리도 들린다. 지난 40여년동안의 근대화가 이룩한 우리사회의 성과가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한 토대위에 서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일 것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은 단순히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침몰하고 다리가 무너진데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얼마전 온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지존파 사건을 보자. 인간성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목소리가 온 나라안에 메아리쳤다. 어디 이 뿐인가 뒤이어 터진 온보현 사건 역시 우리사회의 도덕성을 심히 우려하게 만들었었다. 이러한 도덕성의 실추 역시 우리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토대부실로 볼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얼마전 발생한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까지 더한다면 우리사회 어느한구석 튼튼한 기반을 찾을 수 없을 것만같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고민은 사회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일 것이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국정수행능력이 불신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관리를 종합적인 체계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과거 정권의 통치방식을 미숙한 수준에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이런 미숙한 국정운영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속에서 증폭되면서 이사회의 총체적 위기의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총체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대학사회 역시 이러한 위기의식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건강성과 순수성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던, 우리사회 최고의 교육기관 대학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지난달 31일 본교에서 발생한 '최모교수 폭행사태'가 대학인인 우리에게 주는 반성은 사회의 위기에서 대학만 예외일수는 없다라는 느낌이다.

우선 학생들이 음주후 불상에 오르려 한것 자체가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나 자부심이 부재한 상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학생의 신분으로 스승을 폭행한 사태야 말로 이시대 대학인들의 자질을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와같은 일이 교내에서 벌어졌다는 의미는 이사회의 위기가 이미 대학내에도 뿌리 깊게 침투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사회의 구석구석 썩고 우리마음 귀퉁이 귀퉁이가 병들어서 발현하는 현재의 문제들을 총체적위기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지난 40여년간의 발전이 드러내보이는 한계이고 그 한계를 경고하는 경고장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만이 붕괴 위기의 우리사회를 구축할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강사제도 문제점 진단

본교 강사협의회 창립, 강사 여건 개선 계기

'대학교육 개혁및 강사제도 개선'위한 토론회 열려

강사는 대학사회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더구나 대학강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서 강사의 비중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강사들이 맡고있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해있는 여건은 너무나 열악하다.

본교의 경우도 예외일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하기 위해 본교강사들은 지난 2월24일 본교 강사협의회 결정을 위한 예비모임을 시작으로 많은 협의를 거친후 지난 6월11일 '동국대학교 강사협의회'를 창립했다.

이렇게 창립된 본교 강사협회는 열악한 강사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하 전강노)주최의 '대학교육 개혁과 대학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달 29일 본교 소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강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한면희(전강노 지도위원)씨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수수는 87년 2만8천3백11명에서 91년 3만4천1백59명으로 5천8백여명이 늘어난 반면, 대학강사수는 같은 기간에 2만1천1백61명에서 3만5백84명으로 9천4백여명이 대폭 늘어났다.

90년 대학강사 강의시간 평균비율을 보면 국공립대학는 24.89%이고 사립대는 45.59%에 이른다.

또 94년 전국 주요대학 강사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 1만9천원, 본교 1만5천5백원, 한양대 1만5백원등으로 평균 1만5천원 수준이다.

본교의 경우 올 1학기를 살펴보면 강사들이 교양강좌의 60%를 담당하는등 전체 강좌의 35.8%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3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본교 강사협의회는 강사들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난 6월 민병천 총장에게 건의문을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강사들의 신분보장 △강사 연구실 △고용형태의 불명확성 △강사료의 현실화등을 요구했다.

특히 본교는 야간강좌 교수대기실을 제외하고는 강사들을 위한 어떤 휴게실도 없어 강사들은 강의시간을 맞추기 위해 학교주변이나 강의실 밖을 배회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토론자인 박거용(민교협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교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도 강사배려항목이 거의 없다"고 말함으로써 현 대학사회에서 강사들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도시근로자 최저 생계비의 1/3에도 못 미치는 강사료, 무원칙한 임용과 불안한 근무조건, 재직 신분증도 발급받지 못하는 현실, 연구실과 대기실의 부족등은 본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의 문제이다.

이러한 현 실정에서 강사가 대학 교육인으로서 중차대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강사들이 대학 사회에서 더이상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박대용 기자)

이번주 '시사논단'은 지면 관계상 쉽니다. 〈사회부〉

동국만평

박 현 진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남·녀 대졸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인원 및 자격 2,200명

구 분	모 집 부 문	인 원	응 시 자 격
이공계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전산학, 수학, 물리학	1,600명	●정규 4년제대학 모집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 또는 부전공자로 1995년 2월 학사(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및 기취득자 ●1966년 1월 1일(석사 1964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인 문 사회계	인문사회계 전학과	600명	

2. 전형방법
가 1차 필기시험
●이 공 계 : 영어 한자 전공
●인문·사회계 영어 한자 전공(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법학 행정학 영문학 중 택일)
나 2차 면접 및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3.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1994년 12월 4일(일) 오전9시
나 장소 ● 서울지역 접수자 1)이 공 계 건국대학교(성동구 모진동)
2)인문 사회계 경희대학교(동대문구 회기동)
● 울산지역 접수자 울산대학교(경남 울산시 무거동)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당그룹 소정양식) 2통
※ 성적증명서는 추후 필기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바랍니다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4년 11월3일(목)~11월 11일(금) 매일 오전9시~오후 5시(공휴일도 접수함)
나. 장소 : ● 서울 현대인력관리위원회(비원옆 현대주택문화센타 지하철3호선 안국역 하차)
● 울산-현대중공업 인력개발부

6. 기타
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나 우편접수자는 수험표 반송용봉투(우표부착 본인주소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 우송 바랍니다
다 현역 복무 중인자는 1994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라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마 신체장애인의 경우 전형과정상 불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바랍니다. 1994년 11월

현대그룹 '95 취업 서비스제도 안내
1 PC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현대정보기술 PC통신시스템(HIDATE)이용 HIDATE 접속번호:02)725-6824
●'95대졸신입사원 모집 안내 및 회사소개 서비스. '94. 11 3(목)이후
●입사지원서 송부 서비스. 접수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시 우송
●합격자 조회 서비스.'94. 12 13(화) 이후 HIDATE로 조회가능
2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
●1994 12 13(화)이후부터 (02)700-1908로 합격자 조회가능
3. 취업설명회 서비스
●교부, 접수기간 중 서울지역 접수처에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취업 설명회 마련(토·일요일은 제외)

모집회사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전자산업, 현대정공, 현대종합상사,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산업개발, 현대정유, 세일석유, 영진석유, 현대석유화학, 현대종합목재산업, 현대강관, 고려산업개발, 대한알루미늄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미포조선, 현대엔지니어링, 케피코, 현대정보기술, 현대중기산업, 현대증권, 금강개발산업, 현대알루미늄공업, 현대미디어시스템, 현대투자자문, 현대물류

現代 인력관리위원회

지원서 교부처 ●서울(110-793)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비원옆)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2)746-3231/4 ●울산(682-792)동구 전하동 1현대중공업(주)인력개발부0522)30-2391/4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0-1 현대자동차써비스(주) 부산중부영업소051)466-4399/14 ●대구 서구 원대동 2가 69-2 현대자동차써비스(주)북대구영업소053)353-4200/11 ●광주 서구 농성동 415-12 현대자동차써비스(주) 광주영업소062)364-2111/5 ●대전 동구 성남2동 503-2 현대자동차써비스(주)대전영업소 042)624-6301/7 ●전주 경원동 3가 73-1 현대자동차써비스(주)전주영업소0652)86-5111/6 ●청주 영동 87-3 현대자동차써비스(주)청주영업소 0431)52-3911/4 ●춘천 효자1동 685 현대자동차써비스(주)춘천영업소0361)52-4706/8 ●강릉 옥천동 159 현대자동차써비스(주) 강릉영업소0391)43-3390/3

◇북한 핵협상 타결과 남북관계 전망

공동체 지향적사고로 통일굿판 일궈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뒤 1년 반동안에 우리는 무려 5번이나 전쟁위기 곧 민족공멸의 위기를 겪었다. 지난 4월 재사찬위기와 6월위기 때에는 전쟁 촉발 일보직전까지 나가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긴장 속에 가슴졸여온 우리들은 지난 10·21북미협정의 타결로 전쟁위기가 해소되게 되어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다. 이제 핵문제타결로 우리 민족은 '제2의 또 제3의 해방'을 맞았고 동북아질서는 새로운 질서구도로 나아가는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어떠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해 예견되어지는 전체민족사 행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민족적 지상과제인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거의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서을불바다'발언과 그 파문, 전쟁불사론, 전쟁대비론을 역설하던 정권 고위층들이 북미협정에 아무리 떨뜨름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새로운 동북아질서는 한반도 안정화지향적이기 때문에 전쟁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전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압박과 붕괴유도를 통한 흡수통일은 불가능해졌다. 동북아안정지향적인 4강균형의 구도하에서 어느 세력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중국이 지난번 6월위기 때 최광인민군총참모장을 초청하여 혈맹관계를 과시하며서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발하였고 지난 8월 요동반도에서 육해공합동의 북한상륙훈련을 실시한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북한 붕괴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2010년 이전에 미국의 GNP를 능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중국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미국이나 일본의 행보란 희망사항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또 이러한 거시적 구도를 보지 못한채 아직도 이승만류의 북진통일론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한치앞도 못보는 당달봉사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視而不見) 눈뜬 맹인들이 즐비한 것도 사실이다.

세째, 전쟁도 흡수통일도 배제되었지만 분단고착화지향적 새로운 동북아질서는 영구분단으로 귀결시킬 수도 있다. 기존의 안정지향적 질서구도를 깨뜨릴 민족통일을 4강가운데 어느누구도 달가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남과 북의 정부가 형제애보다는 견원지간처럼 적대관계를 지속하는 한 자주적이고 민족공동체 지향적인 통일은 불가능하고 이것이 4강의 이해 관계에 부합한다.

네째, 다른 한편 미국의 일방적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고 4강균형적인 질서가 구축되므로 남과 북이 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전체 민족역량을 결집시켜 자주적 민족통일을 추진한다면 4강가운데 어느 나라도 이를 저지시킬 수 있는 역학구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주적인 민족통일은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몫이 되었다. 곧 우리만 잘한다면 통일은 다된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이제 남과 북이 뭉친다면 세계 10위권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민족사의 예상되는 여정을 위와 같이 예견할 때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구성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민족과제는 민족공동체 지향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기반 조성이다. 민족공동체 통일이란 독일과 같은 영토통일이 아니다. 남쪽이 북쪽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내부식민지화의 통일이 아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평등하게 서로의 자발적 협조에 의해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민족중심적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민족일체감을 복원·발전하는 것이다.

이전환의 시점에서 남과 북이 다함께 이 민족적 핵심과제인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모든정책의 기본 축을 삼아야 한다. 그러나 과연 남과 북의 현정부가 이러한 민족사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남북관계는 단기적 관점에서 공동체지향적인 관계개선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없다. 단지 북미관계개선에 따른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관계개선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년 반동안 핵문제협상과정에서 남과 북은 너무나도 깊은 불신과 적대에 빠졌다. 전쟁불사론 크게 더 흔들기, 잿뿌리기, 판깨기, 끼워넣기로 일관한 남한의 대북핵정책, 조문파동, 공공연한 선언적 흡수통일에 가까운 8.15경축사, 북한붕괴론적 언술체계등은 생존권에 허덕이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웠다.

말로서가 아니라 군비축소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실증을 보여주고 함께 어울려 통일굿판을 벌릴 수 있는 열리고 공동체지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뤄지기까지 적극적 관계개선을 북한이 시도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제한적 개방·개혁으로 생존을 추구하는 급박한 북한으로서 민족공동체지향적이기 보다 흡수통일지향적인 정부주도의 인적·물적교류를 덥석 받아줄 수도 없거니와 받아서도 안된다. 순간적인 환상때문에 기나긴 민족사의 여정을 그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꽃샘시샘은 며칠가지 않는 법이다. 곧, 통일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터이다.

강 정 구
(사회대 사회학과 교수)

시사 초점

12·12 사태
군사반란의 역사를 만들것인가

검찰은 '12·12사건'을 명백한 군사반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등 34명에 대해 '군 형법상 반란수괴, 불법진퇴, 상관·초병 살해'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은 "과거사가 반복 거론되고 법적 논쟁이 계속되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피의자들이 지난 14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의 주도권 장악을 목적으로 사전계획하에 실행된 군사반란의 혐의는 있으나 국헌문란이나 정권탈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내란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측과 피의자측 모두 반발을 표시하고 있다.

신군부 세력 38명을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한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등 전직장성 21명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론은 80년 3월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무시한 것으로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5·18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과 12·12, 5·18, 대통령 취임등을 일련의 내란과정으로 보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앞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건의 진상조사에서 전체적인 평가 대신, 12·12사건만을 단편적으로 들여다봤다는 평가와 함께 피의자들은 마땅히 기소당해야 한다는 국민적정서를 묵과했다는 여론이다.

여·야의원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김도언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요구할 움직임이다.

검찰이 밝힌 기소유예의 이유처럼 역사적인 평가는 당연히 후세에 맡겨야 했지만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 국군의 역사에서 앞으로도 군사반란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

◇'94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조록

김정일 지도체제, 개방·개혁 가능성 내포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권력승계 수단으로 출현

북학핵을 둘러싼 세인의 관심이 수그러들때쯤 북한은 또하나의 카드를 발동시켰다.

북한의 김정일체제가 굳어지면서 정책노선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크게 방향전환을 할것인가에 대한 의제에 답을 던져 주듯 10월 21일 북미협상타결을 이루어냈다.

그로인해 남한의 반북이데올로기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태는 반전에 국면을 맞게 됐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할나위없이 고조됐을때 지난 28일 안보연구소(소장=강성윤·행정대학원)주최로 열린 '94통일문제 학술세미나'는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제1부로 '한반도 통일문제와 오늘의 과제'라는 대주제를 내걸고 학생중심 발표·토론회가 시작됐다.

소주제로 나뉘어 남·북한의 통일정책 변화과정 연구, 남·북한의 현단계 통일문제와 핵 외교연구에 대한 발표를 북학학과 1학년학생들이 했다.

1학년학생이라 그런지 깊은접근이 아닌 학술적으로 알려진 사실만을 나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으나 학생들의 통일의식만은 확인할수 있었다.

마지막 '분단극복사례와 한반도 통일'이란 의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통일방안을 '민족주체적이고 자주적 입장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은 제거하고 남북상호간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보다 심도깊고 학술적인 토론은 제2부 교수중심 세미나에서 바톤을 이어 받았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과 전망이란 대주제를 가지고 민병천(정치외교학)총장의 '김정일체제의 정책전망'에 대한 기조 발제로 포문을 열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개방을 뜻하는 것이고 개방은 곧 종래 북한이 유지해온 폐쇄적인 정책(우리식 사회주의)의 변혁일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과 주목이 증폭되고 있다.

"김일성시대의 '주체적'노선과 정책들이 개혁, 개방의 물결에 같이 변질될 것인가"

이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기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반의 비교로 통해 그 잠재요인을 찾을수 있다고 본다.

그 경우 '주체'와 '우리식 사회주의'가 어떻게 처리될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제1주제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출현과 전개과정'을 안보연구소장 강성윤교수가 발제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우리식'에서 출발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로 정식화시킨 것으로 새로운 필요성의 대두로써 김정일의 새로운 이념창출수단이라 규정하고 또한 김정일이 새로운 실천이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강정구(사회학)교수는 과연 후계자 이념 창출의 필요에 의한 것이 이전의 주체사상과 다른 새로운 이론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제2주제로 사까이 다까시(일본 법무성)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적 특성'을 이데올로기적측면과 권력구조와 변화양상을 설명했다.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인민대중중심을 강조하며 인덕정치와 충효일심을 강요하고 민족주의및 전통적 종교감정은 정치적 술책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권력구조는 인테리중심에서 정치엘리트집단이 지배계급이 되어 지금에 와서는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서의 지위확립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가장 열띤 토론대상으로 삼은 것은 역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적 특성이었다.

따라서 사까이 다까시의 발표에 토론자들의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았다.

유광진(정치외교학)교수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민족을 내세우면서도 사회적윤리와 대치된다면 민족주의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또한 강교수는 "북한의 주요지도층이 인테리라는건 인정한다. 그러나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만을 바라보더라도 인테리중시 필요성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몰락에 정치논리론 개입시켰다면 그책임은 저항세력 형성에 가능성이 있는 지식인의 몫인 것이다"고 주장하여 다까시씨에게 답을 요청했다.

북한의 개방, 개혁여부는 현단계 김정일체제 지도층에서는 적어도 가능성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을 가져온 이번 세미나는 시기적절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질문으로 제기될수 있는 '권력승계가 제대로 될것인가', '체제붕괴 세습붕괴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요인 규명을 못한채 북한의 준비상황만을 거론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양수정 기자)

동악로

투명한 선거

"10만원짜리 축구시합대회가 있습니다"

쉴틈없이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과 양 후보자들의 대답으로 굳어져 있던 참가자들의 눈과 입이 순간적으로 광채를 띄기 시작했다.

학생회관 3층 상설전시장. 서울캠퍼스 제27대 총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한 안진우(국교 4)·곽유찬(야간 영문 3)조와 이영재(정외 4)·이상환(인철 3)조의 언합(가칭)기자회견은 한쪽 구석에 몰려있는 물감등 전시의 흔적이 가득한 이 곳에서 3시간동안 이어졌다.

양 후보측은 교지편집위원회, 포스트, 방송국, 신문사 기자들의 질문에 '일장연설'을 해서인지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그냥 보내기 아쉬웠는지 '깨끗한 선거'를 결의하며 양측 선거운동 본부간의 '돈내기' 축구시합대회를 홍보했다.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과 모범적인 선거만들기의 한 방법이라는 부연설명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한장섭·독문4)는 이번 27대 총학생회선거에 선거비용(선거유인물, P·C 제작등에 드는 비용)과 그 상한선을 책정하고 상한선내의 선거비용을 증선위 통장에 넣은 후 선관위의 통제하에 선거유인물이나 P·C, 표식물 등을 제작케 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총학후보로 출마한 양 후보는 동문선배, 교수등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바닥·손바닥이 부르틀 지경이다.

"총학생회 선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제25대 총학생회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것 같아요" "10만원 내기 축구시합 계속하죠!" 등등 푸념섞인 하소연을 늘어놓는 양측후보지만 깨끗한 선거만이 신뢰받는 학생회 건설의 출발이라며 자세를 가다듬는다.

작년 11월을 되돌아 본다. 정책선거라기 보다 칼라P·C, 화려한 선전유인물 등 바람몰이식 선전이 주도했던 총학생회 선거 모습을….

학내외도 교육시장 개방, 총장선거 등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양측 후보의 결의처럼 투명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곽주영 기자〉

1995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 학 원 ☎260—3093·4

1. **모집과정 및 학과**:석사·박사과정
   가. 인문계:불교·선·인도철·국어국문·영어영문·(◆)독어독문·(◆)일어일본·사·미술사·철·국민윤리·연극영화·교육·(◆)한문·(◆)미술
   나. 사회계:법·정치·행정·경찰행정·사회·경제·경영·무역·회계·농업경제·지리
   다. 자연계:수·물리·화·통계·농·임·응용생물·(◆)조경·전자공·컴퓨터공·(◆)전자계산·전기공·토목공·건축공·화학공·식품공·산업공·(◆)체육·가정·한의·의
   단, (◆)는 박사과정 제외
2. **원서교부**:1994년 10월31일(월)~11월10일(목)
3. **원서접수**:1994년 11월 8일(화)~11월10일(목)
4. **전형일시**:1994년 11월18일(금) 10:00 동국관
5.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영어/전공/구술고사(각 학과별로 실시)
   나. 박사과정:영어/전공(공통·세부전공)/제2외국어(불교·인도철·철·한의학과에 한함)/구술고

불 교 대 학 원 (야간) ☎260—3097·8

1. **모집과정 및 전공**:석사·연구과정
   가. 불교학과:불교학·선학
   나. 불교사학과:불교사·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포교학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년 11월 7일(월)~11월21일(월)
3. **전형일시 및 방법**:1994년 11월24일(목) 14:00
   석사과정:영어·전공·면접
   연구과정:서류전형·면접
4. **특 전**:조계종재적승려·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관리자과정 (야간)■

1. **지원자격**:조계종의 대덕법계품수승려·각 종단의 간부·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신심이 돈독한자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년 11월 7일(월)~11월21일(월)
3. **전형일시 및 방법**:1994년 11월25일(금)13:00 서류전형 및 면접
4. **특 전**:조계종재적승려·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행 정 대 학 원 (야간) ☎260—3101·3

1. **모집과정 및 전공**:석사·연구과정
   가. 행정학과:일반행정·공공정책·관광행정·언론홍보·환경행정
   나. 안보행정학과:외교국방·방위산업·군사전략·안보정책
   다. 공안행정학과:경찰행정·소방행정·교도행정·사법행정·사경비
   라. 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
   마. 북한학과:북한체제·북한행정·북한사회·통일정책
   바. 지방자치학과:지방행정·지방의회·지방재정·지역개발
2. **원서 교부 및 접수**:1994년 11월10일(목)~11월22일(화)
3. **전형일시**:1994년 11월26일(토) 동국관
4.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행정·구술시험·면접
   나. 연구과정:서류전형·면접
5. **특 전**:석사과정 사회복지 전공자는 1급 복지사 자격증 취득

■행정관리자과정 (야간)■

1. **지원자격**
   가.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나. 각 군의 영관급이상 장교 다. 정부투자기간의 임원
   라. 사기업체의 임원 마. 사회지도급인사 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년 11월10일(목)~12월 2일(금)
3. **전형일시 및 방법**:1994년 12월10일(토) 10:00, 서류전형 및 면접

경 영 대 학 원 (야간) ☎260—3106·7

1. **모집과정 및 전공**:석사 및 연구과정
   가. 경제학과:산업경제·금융 및 재정
   나. 무역학과:무역이론·무역실무·무역보험 및 해운·무역경영
   다. 경영학과:조직 및 인사관리·생산관리 및 계량경영·마아케팅·재무관리·국제경영
   라. 회계학과:관리회계·재무회계·세무회계
   마. 경영정보학과:정보시스템·경영정보시스템
   바. 노사관리학과:노사관리
   사. 부동산학과:부동산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년 11월16일(수)~11월25일(금)
3. **전형일시 및 방법**:1994년 12월 3일(토)14:00 논술(경영학원론)·면접
4. **특 전**:조계종재적승려·공무원·교직원·공인회계사등에게 장학금 지급

■경영관리자과정 (야간)■

1. **지원자격**
   가. 회사, 사회단체의 대표 및 간부 나. 노조간부 다. 군 고급장교
   라. 정부 각 기관 5급이상 공무원 마.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제27대 총학생회 정·부 입후보자 인터뷰

◇안진우(국교 4)·곽유찬(야간영문 3)조

시대개척! 도전하는 1만 청춘이여! 그 자부심으로 새동국 건설을 다짐하자!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한 동기

—합의에 근거하지 못한 도덕적인 결합으로 신뢰를 잃어왔던게 학생회의 모습이다. 또한 대중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학생회 사업과 더불어 95년 교육시장 개방과 통일원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싶다.

△제26대 총학생회 전반적인 평가 또는 사업평가

—학생자치기구는 도덕성에 기반한 대중조직이어야 함에도 졸준위 옵션문제로 학생회 전반적인 도덕성에 타격을 입혔다. 총운위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학우들을 모아내는 지도력을 상실했음을 알수 있고 함께 하는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소수의 사람만으로 대중사업을 이끌어간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져가는 현실에서 내놓을수 있는 학생회 강화의 구체적 대안.

—실추된 학생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학복위는 학생들을 위한 생협으로의 발전을 꾀하며, 불필요한 학생회 구조를 혁신하고,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 힘있는 총학생회를 건설하겠다.

△내년 학생회 운영방안

—강압적, 타율적인 내용으로 총학으로의 무리한 집중요구는 힘있는 총학건설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하달식의 지도내용은 단과대·과학생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있다. 내년 학생회는 어떤 사업이든 단과대·과학생회 단위에서 하고있는 나름의 고민을 총학에서 받아안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며 행사치르기식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

△총장선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총장은 행정의 수반이다. 또한 총장선출은 교수회장선출과는 다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주체가 함께해서 학교발전을 구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모두의 합의에 기초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 시점에서 후보선출 자체는 교수회가 치뤄내는 것은 인정하지만 후보심사과정에 반드시 제주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교수회 총장후보선출에 관한 규정에서 2인추천—1인낙점은,1인추천—이사회승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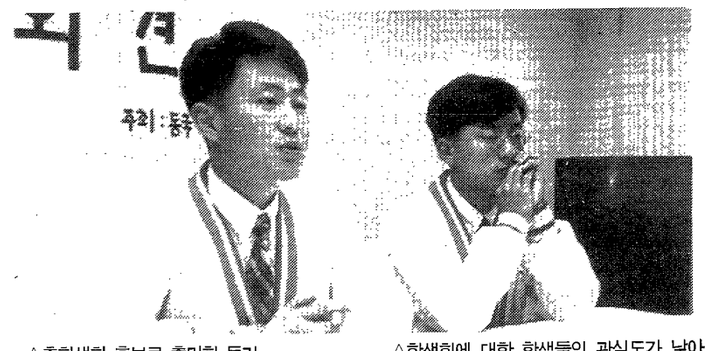
지난 90년과 같은 방식으로 올해의 총장선거가 행해진다면 그것은 동국발전의 의지보다 개인의 이속을 차리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으며 1만학우들과 함께 힘찬 재단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또한 본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선거 2차 유세때 자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투쟁체로의 전환을 학우들에게 제안할 것이며 당락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가겠다.

〈이유리 기자〉

◇이영재(정외 4)·이상환(인철 3)조

새로이 쓰여지는 제3세대 동악의 역사! 참여와 창조의 우리 시대가 달려갑니다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한 동기

—얼마전 성수대교붕괴를 보고 지금의 학생회상황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대는 변했지만 현 학생운동은 80년대 가투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낡은 정파대립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에 걸맞고 교감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학생회, 총학생회도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제26대 총학생회 전반적인 평가 또는 사업평가

—학생회의 힘은 학우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에서 나온다. 이점에서 제26대 총학생회는 학우와의 의사소통 부재로 힘이 없는 총학생회였다고 본다. 지나온 사업들을 보면 단순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벤트성 행위로 그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총학생회장 사퇴이후 정책지도력 상실로 과학생회및 단대학생회의 활동을 보장할 수 없었다.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져가는 현실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학생회 강화의 구체적 대안.

—현재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학생중심이기 보다는 정치중심의 정책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정치적이라는 학생회에 대한 기본시각 변화와 함께 과학생회의 자율적 흐름과 기능, 위상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학생회를 건설하겠다. 즉 학회구조를 학생회 사업으로 돌리고 각과·동아리·소모임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물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내년 학생회 운영방안

—학생회의 문을 열겠다. 현대 사회와 함께 대학사회 역시 광역화·분권화되고 있다. 학생회의 지방자치제 시대가 온것이다. 학생회는 학생복지부터 정치투쟁까지 모든걸 해결한다는 학생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작은학생회'를 만들겠다. 학생회가 과도한 짐을 벗을때 학생회의 위상이 바로 서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총장 선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직원, 학생 참여없이 지난 90년과 마찬가지로 교수회 단독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하는 것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교육개방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일부대학 차별화정책아래 우리 동국대학교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기에 총장선거는 본교 발전의지가 응집되고 새로운 전환기가 되는 계기이다. 교수회만의 단독선거는 동악의 한 주체로서의 자기것을 창조하는 생산자로의 역할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논리에 의해 학생들이 소비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총장이 일방에 의한 제단낙점이 된다면 각 과·단대의 합리적인 연대를 통해 불신임운동을 전개해 생산자로서의 학생의 지위를 보장하겠다.

〈곽주영 기자〉

◇중선위장 한장섭(독문4)군을 만나

선거공영제 실시, 특징적

제27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지난27일 등록마감, 31일 공보부착, 어제(1일) 1차유세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1학기 학생복지위원회, 총여학생회선거에 실시했던 선거공영제를 보완 시행하는등 선거준비에 분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한장섭(독문4)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이번 선거시행세칙의 특징은.

=첫째로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를 없애고 둘째는 투표지역을 기존의 4개 지역에서 7개지역으로 늘려 학우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려 한다. 또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렸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적용되는 선거공영제의 구체적 내용은.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각 5백만원으로 정하고 그속에서 선거를 치르도록 한다. 중선위에서는 각후보자의 포스터, 정책자료집, 플래카드, 어깨띠등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선거공영제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해선 지난번 제26대총대의원회가 실시한 공청회에서 각학교의 실시상황등을 비교검토한 바 있다.

예를들어 리플랫, 정책자료집등을 각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서 제작하나 중선위에서 각후보자의 예치금으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최소한 선거비만큼은 공개될 것으로 보며 이는 내용성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선거후 이월작업에 대한 계획은.

=몇몇 학생회간부의 선거로인한 공석으로 원활한 이월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후 합동이월기간을 거칠것을 각학생회자치기구에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각후보자와 유권자에게 하고싶은 말은.

=선거는 대학문화의 꽃이다.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치뤄냄으로써 침체된 대중운동의 부활은 물론 학우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학생회의 강화에 복무했으면 한다.

〈김소영 기자〉

◇언론협의회(건)주최—총학입후보자 기자회견

이·이조 — 본교 특성 개별화 중요

절박한 생존권 문제, 교수 직원 학생 연대투쟁

안·곽조 — 개교 이래 최대 위기

3주체 나름의 고민 하나로 묶어내는 자리 마련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학생회의 기본개념을 정리해본다면

—안진우·곽유찬조: 정권의 통치 기반이었던 학도호국단을 폐지하면서 건설한 총학생회는 80년대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정치투쟁에 몰입하고 대중기반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에 맞는 학생회의 모습은 학우에 근거한 자주적 대중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영재·이상환조: 풍부한 대중조직이어야 하며, 전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를 수용할수 있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하며 그래서 '학생회의 지방자치제'를 제안한다.

△현재 총운위의 현실은 본교 학생운동의 일단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총운위 혁신을 위한 후보자들의 대안은.

—이·이조: 실제로 총운위가 가지는 힘은 매우 미약했다. 같은 정파끼리 미리 의견을 맞추고 총운위에 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낼수 없다. 총운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는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안·곽조: 올해 총운위의 모습은 학우들에 기반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장을 내세우기에 그쳤다. 그예로 연초 등투의 과정을 들수 있는데 대중의 합의없이 간부들의 합의만으로 결정해 버렸다. 총운위는 각단위의 같을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한다.

△작년부터 크게 논란이 됐던 학복위문제의 요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이조: 획일적 운영방안이 문제다. 처음 학복위에 문제를 제기했던 3학우가 일반학우의 호응을 받았던 것은 학생회의 불투명성, 비민주성때문이었다.

—안·곽조: 학복위가 무엇을 하는지도 학생들은 잘 모른다. 공개성이 부족한 것도 감사나 학복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나타났다.

△내년 학자투 전개의 구체적 방안은.

—이·이조: 본교의 특성을 살리고 개별화해내는,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로 다가가겠다. 교수·직원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

—안·곽조: 현 상황은 본교 개교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본다. 이에 대한 교수·직원·학생들 나름의 고민은 있지만 하나로 묶어내는 자리가 없다. 이것을 강화해 내겠다.

△제26대 총학의 졸준위 옵션문제는 누적돼 오던 학생선거문화의 타락을 보여준 예다. 이 문제와 더불어 기간 산재했던 본교 선거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안·곽조: 정책선거로의 선거문화정착을 유도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우들의 의식은 건강하며 이들에게서 제기되는 투쟁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극복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성숙한 선거공영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이조: 일반학우들 중에는 아직도 총학생회장 사퇴나 졸준위 옵션문제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폐쇄적인 학생회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토론문화가 부재한 동악의 현실을 극복할수 있는 방안은.

—이·이조: 학생회가 모든 고민을 담아낼 수 없는 현실에도 담아내야 한다고 하는 당위는 여전하다. 의식공유의 연결통로가 되고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네트워크 학생회'를 제안한다.

—안·곽조: 학생회 일꾼들이 학우를 직접 만나지 않고 방안마련에만 고심해서는 서로간의 괴리가 생길수 밖에 없다. 학생회와 일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록·정리=이유리 기자〉

2. 원서접수 및 접수:1994년 11월16일(수)~11월25일(금)
3. 전형일시 및 방법:1994년 12월 3일(토) 10:00 서류전형 및 면접

교육대학원 (야간) ☎260—3109·10

1. 모집과정 및 전공:석사 및 연구과정
   가. 교육학과:교육행정·교육경영·상담교육·유아교육
   나. 교과교육학과:국어·지리·역사·수학·윤리·철학·미술·한문·체육·영어·물리·화학·생물·가정·전자계산·종교교육·중국어교육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년 11월14일(월)~11월25일(금)
3. 전형일시 및 방법:1994년 12월 3일(토) 14:00 서류전형·면접 및 전공구술
4. 특 전:교육기관의 교사·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경력을 감안하여 전형시 가산점 부여

정보산업대학원 (야간) ☎260—3113·5

1. 모집과정 및 전공:석사 및 연구과정
   가. 정보관리학과:정보관리 나. 전자계산학과:전자계산
   다. 신문방송학과:신문방송·출판잡지 라. 광고홍보학과:광고홍보
   마. 정보통신학과:정보통신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년 11월21일(월)~12월 2일(금)
3. 전형일시:1994년 12월10일 14:00
4. 전형방법:석사과정은 전공필기시험 및 면접(구술시험) 연구과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정보관리·전자계산학과:컴퓨터개론
   나. 신문방송·광고홍보학과:논술고사
   다. 정보통신학과:정보통신개론
5. 특 전:공무원·언론인·교직원·군인에게 각종 장학금 지급하며 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함

■정보산업관리과정■

1. 지원자격:언론계·기업체·국가기관·군인·사회단체의 중견관리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연구과정과 동일

산업기술대학원 (야간) ☎260—3602·3

1. 모집광고 및 전공:석사 및 연구과정
   가. 산업과학과:전자·전기공학·컴퓨터공학·기계공학·건설공학·화학공학·재료공학·식품공학·산업공학·농림자원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년 11월16일(수)~11월30일(수)
3. 전형일시 및 방법:1994년 12월 3일(토)14:00 서류전형 및 면접
4. 특 전
   가. 공무원·군인·교직원·국가산업체 및 유수한 기업체 중견간부 등에게 각종 장학금 지급
   나.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중견간부와 장기 실무경험자는 우대전형

■산업관리자과정 (야간)■

1. 지원자격: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고급공무원 및 장교·개인사업자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연구과정과 동일

지역개발대학원 (경주·야간) ☎(0561)770—2091·3

1. 모집과정 및 전공:석사 및 연구과정
   가. 개발행정학과:개발행정·지방자치·지역사회개발
   나. 지역경제학과:지역경제개발·산업경영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년 11월14일(월)~11월24일(목)
3. 전형일시 및 장소:1994년 11월26일(토)14:00 경주캠퍼스 진흥관
4.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논문·서류전형 및 면접
   나. 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5. 특 전:기업체 및 국가기관 실무경험자는 우대 전형하며 공무원 등에게 장학금 지급

■관리자과정 (경주·야간)■

1. 지원자격:정부 각 기관의 관리자급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사기업체의 간부, 공공 및 사회단체의 간부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연구과정과 동일

문화예술대학원(신설·야간) ☎260—3605·7

1. 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가. 문예창작학과:문예창작
   나. 연극영화학과:연극·영화영상
   다. 불교예술문화학과:불교미술·불교음악·문화재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년 11월28일(월)~12월 9일(금)
3. 전형일시:1994년 12월16일(금)
4. 기타 전형방법등 상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문화예술관리자과정■

1. 지원자격:중진작가·연예인·불교예술인 및 문화예술기관 간부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연구과정과 동일

동국대학교

동국문학의 현주소 찾기

그동안 배출시인 3백여…'시인공화국'표현 적절
개개인의 창조적 열정·약진, 전통계승의 원동력

이번호(1160호)부터 동국문학의 현주소 찾기를 시도합니다.

시, 소설, 평론등 각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본교출신 문인들의 그동안 문학적 성과, 작품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현 동국문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동국문단에 대한 자긍심 고취 또는 발전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동국대학 문화전통의 유수함과 화려함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 흔히들 풍수이론에서 말하는 서울의 주산(主山)인 북한산을 마주하고 앉은 안산(案山)인 남산 북쪽 기슭에, 주산에서 뻗어나온 지맥이 제 온 곳을 되돌아보는 희룡고조의 형국으로 힘을 뭉친 그 자리에, 만해 한용운의 시비가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서있다. 이곳에 서면 북한산 남장대가 마치 파도꼭지처럼 밀려오고, 밀려오는 힘이 비로소 이곳에서 샘물처럼 용솟음쳐오르는 위력을 느낀다. 만해의 시비가 서있는 자리는 땅의 기운이 솟는 자리요, 곧 동국문학전통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시인 만해가 생존시에 이곳을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남긴 고고한 정신과 한국근대문학사에서의 발자취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달진, 신석정, 조지훈, 함형수, 서정주가 한용운의 뒤를 잇고, 장호, 김종길, 이형기, 신경림, 박제천 등 이루 헤일 수 없는 기라성같은 시인들이 동국시의 성좌를 물려받으면서 동국대학은 이른바 '시인공화국'으로 불리워졌을 정도였다.

하기사 그동안 배출한 시인만도 3백에 가까우니 그럴 법도 한 것이다. 개개인의 문학적 성취는 뒤로 하더라도 일단 그 숫자에서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압도적이다. 쉬운 말로 가문이 좋은 것이다. 터전이 좋으니까 눈짓을 예쁘게 보내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싹이 잘 나온다. 한 10여년 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고, 그래서 동국문학의 현주소를 되묻는 자기검열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른다. 언제까지나 화려한 전통을 운운하며 그 속에 무임승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 세대는 신중하게 반성해야만 한다. 전통의 광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으로 이어받았을 때 빛나는 것이지, 찬양만 하고 있다가는 허공의 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개개인의 창조적 열정, 그 각개약진만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다소 비장한듯한 이러한 결의가 그러나 우리 시인들의 현금의 활동을 비판하자는 의도는 아니다. 동국의 시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 시단의 한가운데서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다.

미당 서정주(국문과 종신 명예교수)는 우리 모국어의 위엄과 천진난만함을 60년 이상 체현해낸 살아있는 문학사다. 그가 팔순의 나이에 이르도록 발표한 시들은 무려 천편을 육박한다. 그 한편한편이 문학적인 의미에서 모두 의미심장하고 세련된 것이며, 버릴 것 없는 작품들이다. 미당은 비록 후기시의 그 초월적 신비주의와 엉뚱한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서 논란의 표적이 된 바 있지만, 그것은 결코 미당 시가 이룩한 모국어의 위대한 성채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가 모교에 바친 시 '우리 고향중의 고향이여'는 단순한 기념시를 넘어, 나약하고 나태한 현대인의 삶에 용기를 주는 예지자의 목소리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서정주라는 큰 나무는 동국정신의 완전한 표상이지만은 않다. 그와는 다른 방향에서 동국의 시단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시인들 중에는 장호, 이형기, 신경림 등을 꼽을 수 있다.

장호(국어교육과 교수, 1994년 정년)는 현대 삶의 부조리를 냉철한 지성으로 고발하는 시를 쓰면서, 그 시야를 산으로 옮겨가 높이를 지향하는 불굴의 정신과 유산(遊山)의 지혜를 사랑하는 거인의 풍모를 형상화한다. '낙화'의 시인으로 많이 알려진 이형기(국문과 교수, 한국시인협회 회장)는 문명을 비판하고 현대 삶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풍자하는 시편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으로 있는 신경림은 문학이 실천적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장 힘있고 아름답게 표방하는 대표적인 시인으로 손꼽힌다. 이들의 시세계는 분명 서정주의 정신과는 다른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다.

박제천, 홍신선, 문정희 등은 이들의 뒤를 잇는 세대들이다. 호방하고 자유분방한 상상력으로 동양의 지혜를 탐구하는 박제천과는 달리, 홍신선은 현대인의 삶을 예리하게 통찰하는 모더니스트의 모습을 견지해나간다. 또한 감각적 표현에 뛰어난 문정희는 동국이 배출한 여류의 선두주자로 김초혜, 박정희 등과 함께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여행 모티프를 자주 사용하면서 절제된 표현을 즐겨 쓰는 윤제림, 현대의 복잡한 삶을 치열한 정신으로 관통해나가는 윤성근, 빛나는 기지와 유니크한 풍자의 시인 유하, 내면성찰에 몰두하는 이윤학 등은 비교적 젊은 세대들로서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진들이다. 간략하게 언급하기는 했지만,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만큼 동국의 시인들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인들이 혹은 앞으로 배출될 젊은 시인들이 한국시단의 주요 시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통만을 고집하거나 찬양하는 데서 벗어나, 각자가 최고의 개성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질책해야 할 것이다. 문학창작에 있어서 '우리'란 없는 법이다. 오로지 '나'만이 있으며, '나'의 다양한 개성이 모일 때에만 전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전통은 제가 온 곳을 되돌아보는게 아니라 제가 갈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만해의 시비가 서있는 자리의 그 역설의 미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윤 재 웅
〈문과대 국문과 강사〉

글 싣는 순서

1. 시
2. 소설
3. 평론 수필 아동문학 희곡
4. 월북작가
5. 총론—좌담

이상문학상 수삭장 '하나코는 없다'작품 분석
'지나치게 관념적인 설정…실체파악 어려워
"일상의 공간속에서 하나코는 있다"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작으로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가 선정되었다.

우리 문학현실에서 문학상이 지니는 폐단등 일부 부정적 시각을 인정할때 수상작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소설 '하나코는 없다'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문학이 현실의 경향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하다. 90년도 이전의 계급적모순을 논하던 담론형식을 벗어나 이후 등장한 신진작가라 불려지는 공지영, 신경숙, 이영미의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있는 것은 '대중소비사회'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2년전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던 최윤씨가 지금에야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모아진다.

'작가가 작품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최윤씨를 지난 22일 종로서적이 주최한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최윤씨는 "'하나코 없다'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주변의 공기만큼 일상적인 관계에 관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정면에서 보건, 옆에서 보건 일품인 코를 가진 여자, 그래서 붙여진 별명, 하나코"왜색이 느껴지기도 하는 이 '하나코'는 작품속에 등장하는 한 여자의 별명이다. 작가가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이 '하나코'는 자존심을 상징한다. 그러나 모임의 이 별명을 붙인 남자친구들은 한 여자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연중 무시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코는 어느새 별명으로 불러야 마음편한 상대가 되어 있었다.

하나코는 모두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자이고 이는 나중에 의자 디자이너로 변모한 것과도 연관될수 있다. 하나코는 모두에게 내면으로 다가가려했으나 그녀의 남자친구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서 작가는 우정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J나 P 역시 하나코에게 다녀갔으나 내색을 하지않은 점. 친구관계에서 그정도의 위선에는 무감각하며 그렇다고 쉽게 무너지는 관계도 아닌 그러한 관계를 작가는 지적하고 싶었을 것이다.

"폭풍이 이는 날에는 수로의 난간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안개, 특히 겨울안개에 조심하라…… 그리고 미로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두려워 할수록 길을 잃으리라."이 소설의 첫머리에서 작가는 암시하고 있다. 미로와 같은 삶속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며 그러한 적극적 삶을 살고 있는 하나코와 일상에서 도피, 감상적인 탈출구를 하나코에게서 찾으려는 남성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소설은 페미니즘적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권위를 상징하는 모자를 취급하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주인공의 설정이라든가, 누구에게나 편히 다가가는 의자의 디자이너로서의 하나코, 동업자인 동시에 동반자로 함께하는 하나코의 여자친구와의 우정에서 볼수 있고 남성에게 동업자라는 일상화된 관계를 여성의 경우에는 매스컴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도 나타난다. 또한 갈대밭 근처의 늪지대같이 질퍽거리던 곳의 술집에서의 사건, 취기를 가장한 남자친구들의 강요, 여자를 편하게만 상대하려는 현재의 잠재된 폭력으로 보여지는 문화적상황에 대해 하나코는 술자리를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나옴으로써 맞서고 있다.

'하나코는 없다'라는 소설에 대해 지나치게 관념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적지않다. 관념성극복을 위한 모자, 의자등의 설정조차도 의도적이며 술자리의 상황등 실체를 더듬는 작업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나코를 만나기위해 여행을 떠나던 주인공의 "방해가 되지 않겠냐"는 물음에 대해 하나코는 "나를 그렇게 몰라요?"라고 반문한다. 그 음성은 가끔 유령의 목소리처럼 그의 귓가에 울린다. 하나코의 그 말은 유혹이 아니라 자신을 의연히 지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로인해 주인공은 도피에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수상선정에도 나타나듯 하나코는 타자 또는 집단의 시선속에서 소외된 한 여성의 존재 상실을 그린다. 통념화된 고정관념속에서 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코는 없다. 그러나 하나코가 집단앞에 놓인 개개인의 나일수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관계를 지니는 일상의 공간속에서 하나코는 존재한다.

〈김소영 기자〉

◇'굳은 관념에 작은 틈내기'란 주제로 열린 최윤작가와의 대화

달하나 천강에

인재(人災)의 뿌리

근래에 일어난 일련의 재난들에 대한 원인분석에는 공통적으로 인재(人災)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논리의 비약인지 모르나 우리의 국민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 중의 하나로 국가의 부를 비교할 경우에 일본의 경우 국가는 부자이나 국민은 가난한 반면, 우리의 경우 국가는 가난하나 국민은 부자라는 표현을 종종 접한다. 양자의 현상중 어느 것이 더 좋은 현상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긴 하겠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공동체가 제공하고 있는 역무를 통하여 그 생활의 질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가 우리 보다 건전한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릇 모든 재난의 극복이나 위험의 사전예방은 정확한 사실인식으로 부터 출발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가 있다. 기분나쁘고 불쾌한 일임은 틀림없지만 과거의 역사나 현재를 통하여 양국의 국민성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극복해야 할 점을 몇가지 찾아 보기로 한다.

첫째는 일에 임하는 의식구조의 차이를 들수 있다. 어떠한 결과를 얻는데 거쳐야 할 과정을 성실히 밟는 것을 과정주의라 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결과주의라고 부를 경우,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과정에 충실한 과정주의인 반면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는 결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주의적 생활태도는 효율성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삶의 가치를 오로지 특정 결과의 달성에 두고 과정을 경시하고 있는 결과로 사회분야별 최고의 사결정과정에 있는 계층 이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는 태도에서 "내가 비록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영원히 이 일만 할 것은 아니라"는 심리상태를 가져오는 폐단이 생겨난다. 이러한 자존심은 우리민족이 가지고 있는 경이적인 발전의 원동력이기는 하나 치밀함과 전문성의 요구가 점점 가해지고 있는 현대문명의 운용에 있어서 자주 소위 인재(人災)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병폐의 하나인 한탕주의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를 비난하면서 일본 또는 일본인과의 비교가 신문의 많은 면을 장식했다고 본다.

둘째는 우리는 아직 선진국의 구분을 외적·양적인 지표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루 빨리 이러한 형식적인 기준으로 부터 탈피하여 내적·질적인 지표로 우리 자신을 조명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적·질적인 지표 중의 중요한 하나는 공익우선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우선의식의 결핍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내자식 하나를 위한 촌지는 선뜻 낼 수 있지만, 올 여름같은 혹서에 학부모회의에서 각자 조금씩 돈을 내어 교실마다 대형 선풍기를 들여 놓자는 제안은 부결되었다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공익은 각 개인의 이익을 더욱 돈독히 보호해주고 증진시켜 주는 울타리이며, 개인의 이익보호와 무관하지 않음은 신고와 고발정신이 투철한 국가와 그렇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생활의 질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 성 기 법정대 법학과 교수

문화단신

◇새책 '정재형교수의 영화강의'

본교 연영과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며 현재 본지8면 '영화의 페러독스'주필자인 정재형교수의 저서로 '알기쉬운 우리식 영화강의'란 부제가 붙어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 기초용어와 기본개념의 정리와 더불어 각 장에 걸맞는 한 작품을 선정 집중설명함으로써 영화예술의 분석을 쉽게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정재형/영화언어/값8천원

세계를 향한 파워 덩크슛—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냉철한 세계시장—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던 어제의 강국도
오늘은 더이상 변화를 주도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곳을 보고 뛰어야 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주) 금강
세계적 명성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완벽한 시공— 금강종합건설
이들이 바로 더 넓은 세계시장을 바라보며
철저한 인재양성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우리의 자존심 입니다.

세계는 바로 우리가 누벼야할 무한한 코트—
금강·고려가 뛰고 있습니다.

금강·고려
주식회사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징계논의를 위한 교무위원회가 있기전, 국문과 학생들이 참회의 뜻으로 백팔배를 하고있는 모습이다. 〈김소영 기자〉

교수회 선관위장 김진철교수 선출

노조, "교수만의 선거로 총장선출시 혼란가중"

교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선관위원 회의를 통해 사회대 선관위원인 김진철 (정치외교학) 교수를 선관위장으로 선출했다.

교수회측은 선관위장 선출이후 선거일정과 함께 노조·학생측과의 3자연석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원노조 (위원장= 김윤길·총무과)는 교수회 합동대의원회 결과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교수회가 임의적이며 형식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역할에 앞장설것"을 촉구하며 다섯가지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만의 선거는 총장선출의 전체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무리없는 선거일정 수행'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않겠다는 것은 기만의 처사다. △후보간의 정책대결 유도, 선거공영제 확립을 제시했는데 이에관한 세부내용을 표명할것 △노조에서 이사장을 방문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합의된다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모든 제주체들은 동국대개혁을 향한 화합의 상징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과정에 직원이 참여할 시에는 투표직전에 투표자를 선정하여 선거운동 과열, 행정 누수 현상을 막을 것이다.

또 오늘(2일)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총장선출에 대한 입장전달및 논의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졸준위 신입위원 모집

제6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경제4 이하 졸준위)는 제7대 졸준위에서 일할 적극적이고 책임감있는 신입위원을 모집한다.

연영과 졸업공연

연극영화학과는 제32회 졸업공연 '십이야(十二夜)'를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연영과 스튜디오에서 공연한다.

원작자는 세익스피어이며 안민수 교수가 지도, 연출은 진남수 (연영4), 권정주 (연영4)·형유서 (연영4)군이 기획하며 후원은 총동창회와 연영과 동문회이다.

선무부 정기총회

선무부동우회 (회장= 라명렬)에서는 선무부창설40주년 정기총회를 오는 12일 다양관 2층에서 개최한다.

이과대선거 개표시 무리빚어

학대표회의로 개표 결정

제11대 이과대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윤기원·신재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운본)의 선전물 문제로 개표가 연기되었다가 지난달 31일 열린 비상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서문을 양측 선운본이 합의를 함으로써 어제 (1일) 개표됐다.

지난달 28일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위한 룰미팅시 선관위원 임진택 (화3)군이 윤·신 선운본의 명진관 3층 선전물에 적힌 학생들의 이름의 순서가 '선거인 명부'순서와 같다는 문제제기로 시작된 양측 선운본간의 논쟁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표가 연기되었다.

29일 역시 합의를 보지 못했고 개표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에 이과대학생회는 지난달 31일 비상학생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몇 명의 대표자가 자진 퇴장하는 등 어수선하게 진행된 비상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개표무산과 투표무효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불신임안 의결— 선거관리위원장 탄핵소추 △개표여부 결정과 원인규명

두번째 안건과 관련해 양측 선운본이 개표결과에 승복한다는 조건아래 개표할 것을 촉구하는 서문을 양 선운본에 보냈고 이 서문을 양측 선운본이 받아들임으로써 어제 (1일)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결과는 36표차로 박동민·박소현조가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대 선거 모두 끝나

대부분 단독출마—투표율 낮아

각 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지난 28일로 모두 마무리 되었다.

제27대 문과대 정·부학생회장으로 최수일 (국문 3)·조대정 (국민윤리 3)조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9백54명중 5백2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5.3%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4백72표, 반대 48표, 무효 8표와 0.2%의 오차율을 나타냈다.

제11대 이과대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박동민 (물리3)·박소현 (화2)조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5백59명중 4백9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7.7%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박·박조 2백59표, 윤·신조 2백23표, 무효 8표로 윤·신조는 46%의 지지율을 얻었다.

제8대 사회대 정·부회장 선거에서 단독입후보한 정심곤 (사회3)·여제웅 (정외3)조는 총유권자 5백94명중 3백60명이 투표하여 60.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3백1표를 얻어 84%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제27대 경상대 정·부학회장으로 서동욱 (무역 3)·조성식 (경제 3)조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1천69명중 5백75명이 투표하여 53.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4백99표, 반대 69표, 무효 8표를 나타냈다.

제27대 농과대 정·부학생회장으로 기호2번 박동혁 (농경 3)·박형규 (산자 2)조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4백67명중 4백17명이 투표하여 89.3%의 투표율을 보였고 기호1번 우은식 (농생 3)·김기문 (농 3)조가 1백82표를 얻었고, 기호2번이 2백30표를 얻었다.

〈단과대 학생회 당선자〉

	정	부	투표율	지지율
문과대	최수일 (국문3)	조대정 (국민윤리3)	55.3%	89.3%
이과대	박동민 (물리 3)	박소현 (화학2)	87.7%	52.9%
사회대	정심곤 (사회3)	여제웅 (정외3)	60.6%	84%
경상대	서동욱 (무역3)	조성식 (경제3)	53.8%	86.8%
농과대	박동혁 (농경3)	박형규 (산자2)	89.3%	55.2%
공과대	김성현 (산공3)	박창민 (기계3)	66.3%	58%
사범대	조현종 (국교3)	홍석민 (지교3)	60.8%	90.3%
예술대	조진호 (연영3)	구철회 (미술2)	75.6%	96%
야간강좌	황인구 (영문2)	김준철 (경영2)	74%	55%

제17대 공과대 정·부회장 선거에서 총인원 1천9백50명 중 1천2백93명이 투표하여 66.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기호2번 김성현 (산공·3)·박창민 (기계3)조가 7백51표를 얻어 58%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기호1번 찬성국 (컴공3)·유명곤 (산공2)은 5백37표를 얻어 42%의 지지율을 얻었다.

제27대 사범대 정·부학생회장으로 조현종 (국교 3)·홍석민 (지교 3)조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9백64명중 5백87명이 투표하여 60.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5백30표, 반대 52표, 무효 5표로 나타났다.

제8대 예술대 정·부학생회장으로 조진호 (연영3)·구철회 (미술2)조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3백29명중 2백48명이 투표하여 75.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2백34표, 반대 14표로 나타났다.

제11대 야간강좌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으로 기호2번 황인구 (영문 2)·김준철 (경영 2)조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1천1백47명중 8백5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기호 1번 오은성 (영문 2)·김대건 (무역2)조가 3백61표를 얻고, 기호 2번이 4백68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제11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후보로 김용욱 (화공3·현대과학연구회)·김향수 (철2·언론문화연구회)조가 입후보했다.

△나와 우리를 묶는 매듭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매듭 △민주노총의 건설과 노학연대 실현의 매듭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입후보한 김·김조는 어제 (1일) 학생회관 3층 상설전시장에서 1차유세를 가지고 내일 (3일) 학생회관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대학원학생회 16일선거

제11대 대학원 정·부학생회장 후보에 김광용 (정치학박사 2학기)·이성우 (철학석사2학기)조가 단독 출마했다.

김·이후보는 "원우의 학업정진을 위한 복지수준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그러한 문제를 학교당국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선거는 오는 16·17일 이틀간 있을 예정이다.

'불교민속학의…'학술회의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는 제4차 학술회의 '불교민속학의 과제와 전망'을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김영태 (불교학)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한 이 학술회의는 각대학 불교학및 민속학 관련 학자들이 모여 발표와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다.

불교민속학은 전통민속에서 불교와 관련된 것을 변별 추출해내는 학문분야이다.

연변대학교수 초청강연

법과대 (학장= 백봉흠·정치학)는 중국 연변대학의 김영춘 (법학) 교수를 초청하여 오는 3일 동국관 (M307)에서 '중국개혁과 법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연다.

디딤돌, 아시아영화제

영화동아리 디딤돌에서는 오늘 (2일) 부터 4일까지 아시아 영화제를 학림관소강당에서 개최한다.

'변모하는 세상 영화의 중심'이란 부제를 내세운 아시아 영화제에서는 △호모비디오쿠스— 김재용 △해자왕— 첸카이게 △우월물어— 미조꾸찌겐지 △동년왕사— 후샤우시엔 △교사형— 오시나마기사 △세여자이야기— 고노금붕 △도쿄이야기— 오즈야스지로 △먼천둥— 샤트야트레이 △벚꽃동산— 나까하순 △오발탄— 유현목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극예술연구회, 정기공연

극예술연구회는 제35회 가을정기공연으로 '불의 가면'을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극회소극장 (학생회관 5층)에서 펼쳐보인다.

극회의 한 관계자는 "권력과 지식의 대결구조를 통해, 진정 인류진보에 이바지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한다"며 "작품전반에 흐르는 비도덕적 요소를 학생의 연구무대에 어떠한 방법으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회·전·무·대

동악의 앨리스

O…동악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

다름이 아니라 보리수의 시계는 현 시간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데.

또 새로 다향관에 설치된 전자시계도 날짜와 요일이 모두 틀리다고.

이에 한 학우 "이상한 나라는 있는데 앨리스는 어디 있나요?"라며 일침.

양상군자

O…학생회 선거의 바쁜 틈을 너무나 잘 이용해 한 건 올린 용감한(?) 이가 있다하여 동악내화제.

다름아니라 학생회비로 갖춰진 모 단과대 학생회실의 컴퓨터가 지난 26일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다는 내용.

또 얼마전에는 동국관에 배치된 단말기가 몽땅 도난당한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이에 회전무대자 "양상군자님, 대들보에서 언제 내려오시겠어요?"라며 비웃어.

지존파는 왜?

O…전·노 두 전직대통령이 반란수괴임은 인정됐으나 처벌이 없어 화제인데.

12·12사태로 인해 맞고소사태까지 이어져 흥미를 끌었던 이번 판결은 죄는 인정되나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더욱 황당한것은 부끄러워해야할 전·노씨측은 판결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는데.

이에 회전무대자 "사람 많이 죽이는것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면 지존파는 왜 사형시키지?"라며 비웃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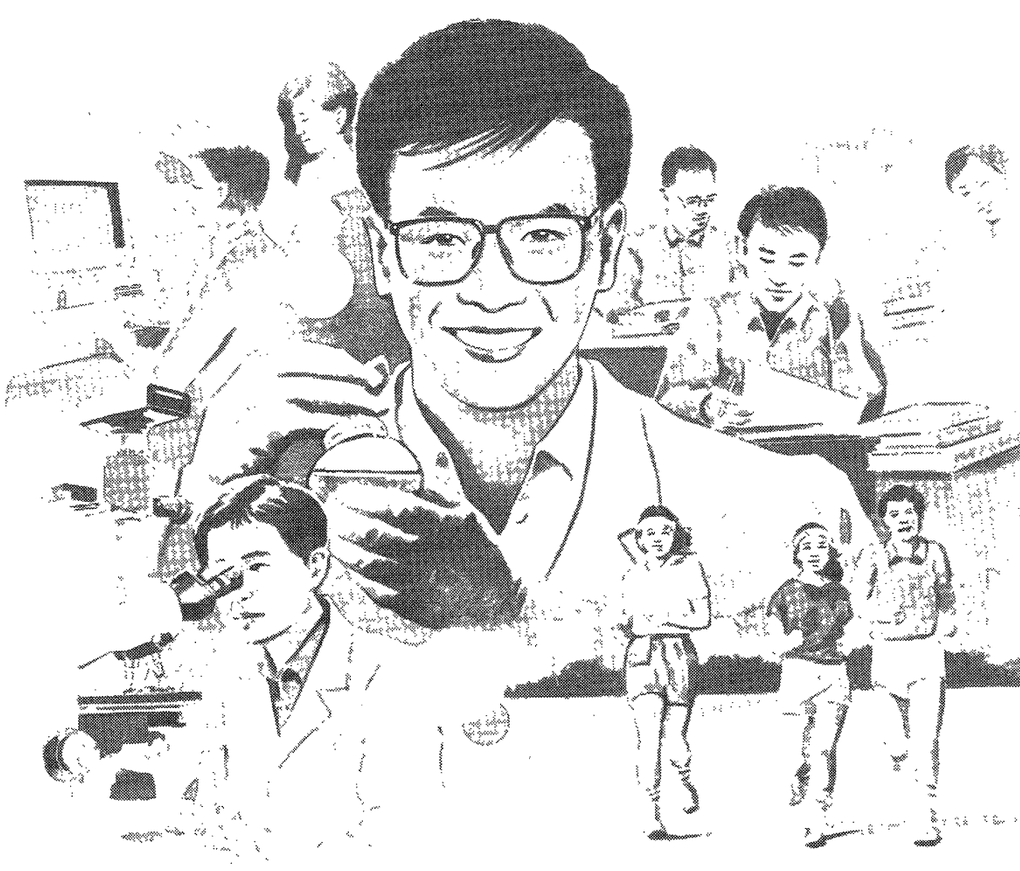
헌혈

O…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일 이틀동안 다향관앞에 헌혈차가 들어와 헌혈캠페인을 벌였다는데.

많은 학우들의 관심으로 헌혈을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어 좋았다고.

간호사들도 학생들의 기대이상의 호응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는데.

헌혈을 하고 나오면서 회전무대자 왈"피땟힌 빵을 먹어본 자만이 헌혈의 기쁨을 알 수 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효성은 항상 노력하는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
노력하는 젊음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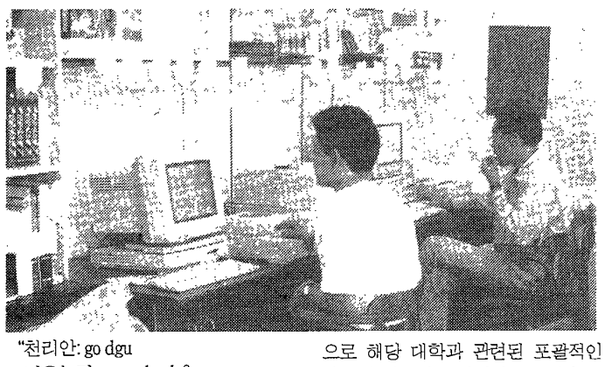
꿈과 낭만이 살아있는 대학생활—
우리 삶을 통틀어 가장 자유롭고
정열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또렷또렷한 눈빛으로
새로운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고
선명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젊은이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효성은 항상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효성그룹

본교 컴퓨터통신 '동호회'개설 어디까지 왔나

'천리안 동호회'·나우누리 '백상'참여 가능

총장추천서등 관련서류 접수로 내년 1월 개설 예정



"천리안: go dgu
나우누리: go sschool 8
하이텔: go ??"

컴퓨터통신을 통해 본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자들이다. (하이텔은 뭐지?)

PC통신은 전화요금이 왜 이리 많이 나오냐는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심지어 그 눈치를 피해 따로 전화선을 설치해 십만원대의 전화요금고지서를 받으면서도 PC사용자의 일상생활이 되었다.

하이텔, Pos-Serve, 천리안, 나우누리 등 많은 형태의 PC통신망은 각종 공공정보제공과 전자우편·홈쇼핑·예약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며 1백만여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정보화 사회를 실감케 한다.

또한 PC통신망은 각종 정보제공뿐 아니라 '동호회'라는 형태를 통해 전문적인 정보를 주고받으며 친목도모와 함께 컴퓨터·음악·학술·건강 등 전문적인 모임의 장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동호회는 일반대학까지 확대돼 'OO학교 통신동호회'(직접 확인이 필요한 분은 Hitel에서 go fcampus로!) 등의 이름으로 재학생을 비롯한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대학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총학생회, 대학신문, 방송국, 동아리, 취업 등)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본교는 뜻있는 통신애용가들에 의해 천리안동호회가 지난 6월24일에, 나우누리에 동국대 통신모임 '백상'이 지난 8월8일에 각각 개설됐다. 그러나 부담없이 여러명이 공동사용(?)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하이텔엔 아직 개설되지 않아 많은 동악인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홍보를 위해 하이텔 교육란에 개설해 놓은 dongguk은 단과대소식·교과과정 등의 방이 만들어져 있으나 해당 자료가 없어 "오히려 없는게 낫다" "학교당국은 각성하라"등 학교의 소홀한 관리와 무성의한 운영이 많은 재학생 통신가들의 비난 대상이 되기도 했다. (궁금하신 분은 go dongguk 88을 입력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동악인은 지난 9월부터 발기인을 모집하고 교수·학생회장등의 추천서를 받는 등 하이텔 '동국대학교 통신동호회(가칭)'개설을 위해 뛰어다니다가 지난 10월31일 총장추천서를 비롯한 여러개의 추천서와 관련서류를 한국PC통신주식회사에 접수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학교 동호회를 개설하면 △고등학생·일반인에게 학교 홍보가 되고 △서울·경주캠퍼스간의 부담없는 교류와 △자취방·물품매매 등의 생활정보 △재학생과 동문간의 관계개선 △학교에 부담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실 정보이용(신문, 취업정도등)을 할 수 있다"며 동호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시삽(Sysop: System Operator)으로 내정된 최은혁(컴공93졸·컴공석사3학기) 동문은 장점을 밝힌다.

제일 중요한 총장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호회와 학교의 원활한 교류와 운영을 위해 2인의 공동내표시삽을 두어 1인은 학교로 한다. 통신동호회개설에 따른 학교 내의 공간, 설비 등은 학교측에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받을 수 있어 학내 공간의 심각성이 PC통신 동호회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인다.

본교 통신 동호회는 △보리수(대화실) △중앙도서관(공개자료실) △중앙도서관 게시판(자료실 게시판) △만해광장(벼룩시장, 시사/취업정보, 동문회/동아리/소모임, 작은논단·△건의사항/복지동국 △동악의 소리(동대신문, Post, DUBS) △온방골이야기(경주캠퍼스) △오래전 그날(동문선배와 함께) 등의 메뉴로 내년 1월정도에 예비개설될 예정이다.

21C정보화시대를 맞아 PC통신을 통해 뭉쳐진 동악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곽주영 기자〉

메아리

죄인없는 유죄

▲반란수괴, 불법진퇴, 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 반란모의 참여, 초병살해… 지난 30일 검찰은 명백한 군사반란및 체제전복혐의의 피의자를 공개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의 피의자 전원에게 기소유예판결을 내렸다. 기소유예의 이유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사가 반복, 논쟁이 계속될 경우 분열과 대립의 양상을 재현 시킬 우려'를 들었다. 죄는 인정하되 벌은 없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또 법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위상이 달린 문제이다. ▲검찰이 발표한 12·12사태의 검찰판결을 순순히 수긍할수 있는 국민은 대다수를 차지하진 못할 것이다.

법형평상의 상식적 논리선상 위에서도 지금까지 문민정부의 법집행의 행태를 봐서도 그렇다. 원전뇌물, 북한 밀입국혐의를 받은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불구속 기소의 관대한 법집행이나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사건의 기소유예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개혁과 변화의 문민시대에 대한민국 법정과 검찰은 반 개혁의 주역이었다는 역설이 나올만 하다. 혹자는 '정치검찰'의 한계란 표현을 썼다. ▲이러한 '불법'을 대국적 견지에서 용인한 이번 검찰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모습또한 여러 형태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즉각적인 형사처벌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표명 뒤에 불쾌한 속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일은 12·12사태의 피의자들이 검찰판결에 승복할수 없음을 강력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지난 80년 5월의 광주를 잊어 버리지 않고 있다. ▲권력장악의 완전한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를 피로물들인 장본인에게 면죄부를 씌워준것은 그것이 설사 대국적이란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선진국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낙후성을 드러낸 것일 뿐더러 억울하게 당해간 광주 민중들의 정당한 기대마저 무참히 꺾어버린 결과가 아닐수 없다. 3당합당과 함께 전 전대통령과 손을 잡고 태동한 문민정부의 이번 판결은 아직도 역사는 현재진행형임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任)

영화의 패러독스 — 우리영화 바로보기

자국적 특수성 따른 가치판단 적용

현사회실정 고려한 해석 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모순중의 하나는 한국영화를 외국영화와 비교하여 보고자 하는 관점이다. 영화의 일대일 비교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국력을 일대일 비교하는 것 만큼이나 무지한 것이다. 영화는 총체적 예술이기 때문에 국가는 후진국인데 영화 하나만이 우뚝 앞서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와 기술, 문화 예술적 수준의 고른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영화의 독자성장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액수의 돈을 내고 본다는 그 점 하나 만으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직접 비교란 것은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제작 여건과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점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고로 영화는 '자국성'에 따라 그 가치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 영화는 우리실정을 항상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적 배경이 우리 영화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영화의 가치판단을 달리 할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상영중인 세편의 한국영화, '태백산맥', '게임의 법칙', '너에게 나를 보낸다' 등은 바로 그 한국적 시각이 당장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영화에 적용되는 한국적 특수상황이란 무엇인가. 먼저 '태백산맥'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원작소설과 영화의 차이는 논의의 중심을 벗어난 해석이기 쉽다.

'게임의 법칙'을 논하는데 홍콩 누와르 영화의 모방이라는 논의는 정곡을 벗어난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를 포르노냐, 아니냐를 따지는 데만 몰두하면 역시 영화해석의 중요한 관점을 잃는다.

최근 우리 주위를 감싸는 굵직굵직한 사고들은 불안한 기류의 형성과 함께 우리 서민들의 의식을 압박하며, 그 안에서 개봉되는 영화들이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의 관점을 제공한다. 해방이후 처음으로 갖게된 남북정상회담의 기대에서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박홍총장의 발언, 공안정국, 근래 역사상 최대의 가뭄, 박한상 부모 살해사건, 인천북구청 비리, 지존파·온보현사건, 성수대교 붕괴참상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들 사건들은 하나같이 대형사고다.

이런 사회적 긴장감은 이땅에 사는 모든 대중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파장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화가 갖고 가는 당대의 자국적 특수성이다. 이들 대형사고의 공통분모는 감추려 해왔던 우리 사회구조의 해묵은 모순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태백산맥'은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말하되, 그걸 오늘의 시점에서 재해석해낸 역사 이야기이다. 오늘 우리에게 빨치산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지나간 그 역사는 어떻게 읽혀져야 하는가. 그런데 임권택감독은 그걸 어떻게 해석해냈는가를 봐야한다. '게임의 법칙'은 현실의 불만을 갖고있는 그릇된 욕망의 반영웅적 주인공의 죽음을 통해 소외된 인간에 대한 동정의식이 더 깊이 자리한다. 주인공을 둘러싼 다른 주요인물들 역시 잔인한 갱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난과 소외에 던져진 이웃, 서민들의 모습인 것이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는 쾌락이 아니라 불쾌와 조소로 일관된 영화이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사회는 쾌락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그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불쾌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화상이 그려지는 것이다.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바로 이 영화가 줄곧 우리의 공감대를 건드리는 부분이다.

이처럼 우리 영화속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로 보고 논점을 잡아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정 재 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영화 '너에게 나를 보낸다'에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 사회는 쾌락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더럽고 추악한 자화상이 그려진다.

◇미술학과 '졸업작품전'지상전시

투철한 실험정신 조형의지 돋보여

본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이 지난 26일부터 1일까지 운현궁미술관에서 열렸다.

"익숙하지는 않으나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표현방식으로 대학 4년간에 연마한 작가의 소양과 자질을 선보인 전시회였다"고 오원배 미술학과장은 평한다.

'풍경'이라는 정은형씨의 동양화는 운일암반일암에서의 추억서린 풍경을 작품가운데 나있는 층계에 율동을 주어 단조로움을 피해 시원한 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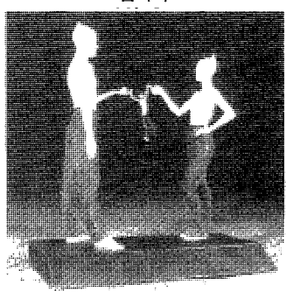
또 졸업작품전에는 처음 시도된 사진작품인 이미정씨의 'Production'은 여성의 본질적이면서도 순수한 특유의 모습을 고기와 꽃, 연인 등을 영상에 담아 표출했다.

조소분야의 이주은씨 작품 '이념의 굴레-안과밖'과 이기석씨의 '스물여덟의 분할'은 다루기 어려운 쇠를 재료로 하여 포징, 절단, 용접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태도가 돋보이며 구성면에 있어서도 탄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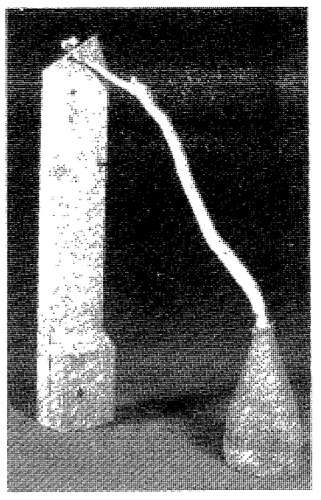
이 작품전은 동양화·서양화·조소·불교고미술 분야의 총 51점이 협소한 장소에 빽빽히 전시되어 산만하고 분산된 느낌 또한 없지 않았으나 피로에 물든 마음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생명수였다.

(秀)

삼각지



Calvbim Klein & Calvin Klain-허구



존재의 가지끝에서

최 경 인
(57)

제32회 학술상 및
제9회 동대문학상 공모

제32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알찬 수확을 거둬온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3개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1일자 본지지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02) 260-3491·2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동국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응모자격
서울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시상
시 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발표
1995년 1월1이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스님과 교수님, 교직원 그리고 전 동국인 전 동문에게 드리는 글

국문학과 전체 학생들은 이번의 불경한 사태로 인해 본의 아니게 전 동국인의 名譽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선학과 현각 스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생의 신분과 宗立學校의 建學理念에 어긋난 행동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전국문학과 學生은 깊은 自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三寶에 거룩하신 스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며 국문학과 전체 학우의 이름으로 다시는 이런 불경한 사건이 없도록 攝心, 信實, 慈愛, 度世의 校訓과 教育理念안에 담긴 佛教精神을 전원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佛紀 2538年 11月2日
국어국문학과 학생 일동

사 과 문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동은 이번 본과의 학생들이 일으킨 불경한 사태와 이로인해 학교의 名譽를 失墜시킨 점에 대해 깊은 自責과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바입니다. 직접 어려움을 겪으신 玄覺교수님과 장근두씨에게 심심한 사죄와 慰勞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으신 宗團의 여러분과 동국가족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특히 학생들의 指導를 잘못한 責任을 통감하며 학과의 전체 학생들이 불상 앞에서 참회하는 모습에 모두 함께 가슴저리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 더욱 奮發하고 失墜된 학교의 位相을 회복하고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名譽를 더 한층 높이기 위해 心機一轉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佛紀 2538年 11月2日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동